



모교 제26대 총장 成樂寅박사 취임



지난 8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제26대 成樂寅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신임 成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미래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대학의 창조 과정”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16면>



吳然天 前총장에 공로패 수여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7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창회 운영위원회 겸 동창회보 편집회의에서 吳然天 前총장에게 재임 기간 우수한 역량과 지도력을 통해 모교를 세계 중심권 대학의 반열에 올린 공로를 인정해 공로패를 수여했다.

앞줄 좌로부터 金哲洙논설위원, 孫一根상임부회장, 徐廷和회장, 吳然天 前총장, 林光洙명예회장, 裴仁俊논설위원

제11회 동문 바둑대회 성황

본회는 지난 7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에서 제11회 동문 바둑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참석한 3백20여 명의 동문과 재학생, 교직원 등은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띤 대국을 통해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쳤다.

경기 결과 단체전 우승은 문리과대학팀, 개인전 최강조 우승은 14학년 韓正官군이 차지했다.

<관련기사 3~4면>



관악출추

吳然天 제25대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7월 20일 평교수로 복귀했다. 그는 4년간의 총장 재임 중 새로운 학문적 가치를 창조하는 서울대 만들기에 진력했다. 2010년 8월 2일 취임사에서 그는 “대학이 희망이다”라고 외쳤다. 이 불확실성의 어둠 속에서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유일한 등불이 바로 대학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모교가 세계적 대학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요구는 지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이 주목하는 서울대학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총장이 스타플레이어가 아니고 스타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는 신념을 갖고 일했다.

그의 재임기간 중 세계대학평가에서 모교의 위상은 높아

졌다. 2010년 QS 평가에서 50위였던 모교는 2013년에 35위를 기록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THE에서도 2013년 44위에 올라 2012년에 비해 15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이뤘다. QS와 THE의 이러한 평가결과는 지금까지 모교가 기록한 순위 중 가장 높은 것이다. 그는 서울대 발전기금의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4년 내내 땀을 흘렸다. 그 결과 5천억 이상의 발전기금 조성에 성공했다. 취임 초기

대학이 희망이다

엔 모금이 잘 되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많았다고 한다.

그의 리더십의 진가는 법인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법인화는 전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지만 그의 노력 끝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다. 그는 2010년 말 국회에서 법인화법이 전격 통과된 후 거의 2년 동안 관계자 및 학생들과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법인화에 반대하는 학생들

이 점거하고 있던 대학본부에 단신으로 들어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공개토론을 통해 법인화의 참뜻을 이해시키기에 힘썼다. 모교 법인화의 핵심은 국립대학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육부의 직할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더욱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을 선도하는 대학이 되자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결국 학생들은 자체투표를 거쳐 점거농성을 해제했고, 마침내 2012년 1월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 법인으로 출범했다.

吳 前총장은 앞으로의 미래 교육에 대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해 어떻게 하면 선진국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금보다 한 단계 차원 높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의 힘’이 ‘지혜의 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서울대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겸손과 배려를 통해 나눌 줄 아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교에서 이러한 교육철학이 계승되고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金好俊 前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시선을 끌어당긴 뉴스가 있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교통안전공단, 택시업계가 뭉쳐 ‘우버 택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는 기사다. 우버(Uber)는 차량 共有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동차를 부르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준다.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4년 만에 37개국 1백40여 개 도시로 진출했다.

한국에는 지난해 진출해 점점 勢를 넓혀가자 택시업계가 ‘밤줄’ 끊긴다며 들고 일어났다. 개인택시 면허를 따려면 6천만~7천만원이 드는데 우버앱의 등장으로 면허도 없는 개인 차량들이 영업을 하게 되면 택시 운전사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택시업계는 우버를 ‘不法’이라 규정하고 앱 차단, 법인 등록 취소, 검찰 고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폰앱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으면 정부와 업계가 TF까지 만들었을까. 한국만이 아니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도 택시 기사들이 우버

에 항의하는 파업을 벌였다. 인터넷숙박 중개업체 에어비앤비(Airbnb)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빈 방을 가진 소유자와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전 세계 고급 호텔부터 에스키모의 이글루까지 빌릴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창업 6년 만에 1백92개국 4만개 이상의 도시를 연결하며 수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지닌 회사로 성장했다.

소비자로서는 환호할 만하다. 우버는 운전자와 탑승객의 상호 평가를 통해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에어

비앤비는 기존 숙박업체와는 차원이 다른 가격과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남는 방이나 혼자 타는 자동차를 공유(sharing)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파괴’라는 평가를 듣는 이유다.

우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보면서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근로자들이 기계를 부순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으로 인해 끊임 없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기존 산업은 위협받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닌텐도 게임과 카메라, MP3가 사라진 지 10년도 안 됐다. 이번엔 스마트폰앱이 택시와 호텔까지 위협하게 될 줄이야!

변화는 기업 생태계뿐이 아닐 것이다.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다. 대학입시 전문가들은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나 ‘서성한(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이니 말하지만 서울대는 이렇게 묶을 수 없는 절대 강자다. 그래서 오히려 모교의 미래가 걱정된다. 경쟁자 없는 강자, 그것도 국내에서만 알아주는 강자는 불안하다.

산업계가 그렇듯 경쟁자는 동종업계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당당하게 헤쳐 나갈 배짱을 가진 인재, 아니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우리는 키워내고 있나?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申 然 琇

(심리83-89)

동아일보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빈손

李 榮 植(언어51-55)

전목포대 교수·시인

별을 따라
앞산에 올랐다가
달빛만 한 짐 지고 내려왔지요.

파도를 뉘으려
바닷가에 나갔다가
노을만 한 아름 안고 돌아왔지요.

추억을 만나러
고향 찾아 갔다가
눈물만 실컷 흘리고 돌아왔지요.

마음을 救하러
山寺에 올랐다가
목탁 소리만 듣고 내려왔지요.

永遠을 찾아서
한평생 헤매다가
미련 없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동문칼럼

스코필드박사는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독립유공자이다. 3·1운동을 주도한 33인과 함께 외국인으로 3·1운동을 적극 돕고 세계에 알린 공로가 있기 때문에 34번째 33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개신교의 선교사로 일본제국주의의 압제 하에 고생하는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의사를 양성하는 데 기여했다. 세브란스의 학전문학교(지금의 연세대 의대)에서 기초의학분야 교수로 일하면서 마침 3·1운동을 계획하는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3·1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가장 추악한 일제의 만행으로 알려진 제암리 교회 학살사건은 스코필드박사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다. 마침 그가 근무하던 세브란스의전도 3·1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쉽게 3·1운동의 요인들과 연결이 됐을 것이다.

그는 이러한 활동 때문에 그 후에 일제에 의해 추방됐고,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가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노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서울대 수의대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헌신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우리나라의 매스컴이 애도하고 그의 삶을 칭송했고 그의 무덤은 서울 국립묘지의 독립유공자 묘역에 모셔졌다.

스코필드박사의 기일에는 서울대에서 매년 크게 그를 기리는 행사를 하고 있다. 스코필드박사의 제사를 서울대가 치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인 연세대와 국립대인 서울대 양쪽과 관계가 있는 분인데 사립대가 아닌 국립 서울대가 그분의 추모행사를 정성들여 하고 있는 사실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참 고마운 일이다.

필자는 대학원 과정을 서울대에서 수학했다. 석·

박사 과정 모두 같은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학위를 취득했다. 재학 중에 지도교수님은 물론이고 전공 관련 여러 교수님들이 너무 따뜻한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평생 가지고 있다. 살고 있던 전세아파트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서 막막했을 때 은행대출을 주선해 주신다든가, 지방대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오면 그냥 보내는 일이 거의 없이 반드시 맥주 한 잔이라도 사 먹여서 보내곤 하셨다. 어떤 과짜(?) 교수님은 처음 인사드리는 날, 고급 일식집에 데려가시더니 자리를 쉽게 끝내지 못하고 마침내 교수님 아파트에 데리고 가서 재워 보내신 일도 있었다.

어찌어찌 하다가 필자가 독립기념관의 책임을 맡게 되니까 지도교수님이 자주 독립기념관에 찾아오신다. 교수님은 독립기념관의 경치가 좋아서 오신다지만 제자가 걱정돼 경치 핑계를 대고 오시는 것을 나는 안다. 우리나라 최고의 경영학 구루(Guru)께서 직접 오셔서 고충을 들어주시니 경영자로서 그보다 더 든든한 일이 없다. 최고의 컨설팅을 무료로 받는 기회가 아닌가?

얼마 전에는 필자의 임기가 거의 다 돼서 대학의 본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평생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칭찬성 말씀을 하셨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 괜찮게 해 왔잖아? 강의를 대신 맡을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해 줄 수 있어! 금박사가 맡는 과목은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을 테니까.”

스승님은 요즘 ‘어느 특별한 재수강’이란 책으로 매스컴에서 크게 소개된 경영대학의 郭秀一교수님이다. 필자에게 해주신 것은 재수강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애프터 서비스이다.

스코필드박사를 잘 모시는 서울대. 제자를 평생 AS하는 서울대. 이것은 세계의 대학 랭킹을 정할 때에는 점수가 되지 않는 서울대의 강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랑할 점이 많은 대학이다.



金 能 鎭
(경대원72-74)
독립기념관장

평생 AS하는 대학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孔大植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宋丙洛, 李炯均, 安炳燦, 丘月煥, 金好俊, 宋鎮赫, 李五峰,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馥, 文昌克, 姜天錫, 高永才, 金仁圭, 徐玉植, 李元燮, 裴仁俊,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李東植, 鄭世溶, 朴聖姬, 曹炳喆,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金仇日, 李啓聖, 金鎮國, 吳在錫, 崔英勳, 李容式, 許承虎, 金昌均, 李先敏, 全榮基, 姜孝祥, 李相起, 金光德, 鄭星姬, 鄭在權, 申然琇, 姜京希, 權石泉,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金希媛, 洪智英, 李佳穎
편집부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埿

비장의 한 수로 무더위도 날렸다



徐廷和회장이 단체전에서 우승한 문리대팀에게 우승기를 전달했다.



단체전 문리대팀 우승 최강조 14학번 韓正官군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7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에서 3백20여 명의 동문 및 재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개인전 7개조(2백19명)와 단체전 17개 팀(90명)으로 나뉘어 열전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徐廷和회장을 비롯해 모교 吳然天총장,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朴熙伯·孔大植·姜寅求부회장, 관악회 鄭啓泳이사, 崔松和(행정59-63)심판위원장, 南治亨(영문94-98·프로초단)·吳周星(물리천문07-11·프로2단)심판위원, 한국기원 朴治文(국문68-79)상근부총재, 경성대 申秉湜(미학73-78)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기원 徐能旭(프로9단)심판위원이 특별 게스트로 자리를 함께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개회사에서 바둑의 이로움을 뜻하는 碁道五得을 인용해 “바둑을 두면 좋은 벗을 얻고(得好友), 상대방과 예를 갖추고 친분을 나눔으로써 인화를 얻게 되고(得人和), 바둑을 통해 일생의 교훈을 얻고(得敎訓), 인내로서 시작하고 끝내기 때문에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得心悟), 두뇌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건강해져 오래 산다(得天壽)”고 말했다.

또 “이기려고만 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며, 냉정히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눈앞의 작은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는 능력을 기르고, 승리를 위해 어려움을 침착하게 극복한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며 “양보와 균형, 조화를 의미하는 흑백의 진리를 되새기며 이번 바둑대회가 모교와 재학생, 동문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멋진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자그마한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徐廷和회장이 모교 바둑부 李成鎬회장(右)에게 격려금 전달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최강조 韓正官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崔松和심판위원장이 A조 鄭範勳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朴熙伯부회장이 B조 李秋夕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姜寅求부회장이 C조 俞炳宇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徐能旭심판위원이 D조 柳相俊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朴治文동문이 E조 魏在勳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申秉湜동문이 F조 禹珍泰우승자(左)에게 상패 전달

북한다는 교훈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으로 다가온다”며 “양보와 균형, 조화를 의미하는 흑백의 진리를 되새기며 이번 바둑대회가 모교와 재학생, 동문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 멋진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자그마한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중국 習近平주석의 모교 방문을 언급하며 “바둑 애호가인 시진핑 주석이 모교를 찾은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 중 모교

동문들의 바둑 실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바둑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결과에 대해 흔쾌히 축하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각 부분에서 이러한 페어플레이 정신이 가장 소중한 시점이기 때문에 모교 동문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당부한 뒤 퇴임 인사말을 함께 전했다.

이러진 경과보고에서 경기운영위원장인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난중일기를 보면 李舜臣장군도 진중에서 바둑을 뒀다는 얘기가 있듯이 바둑판 위 흑백의 생존 경쟁 속에서 용법과 병법은 물론 현대인의 처세의 비책까지도 체득할 수 있다”며 최고령 참가자인 黃兢淵(생물교육50-54)동문과 최연소 참가자 金頌浩(지구과학교육14입)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참가자들이 공정하고 진지한 경쟁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대회는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뜻으로 타징 대신 본회 孔大植부회장이 대국 시작을 외쳤으며, 오후 4시를 넘겨 종료됐다.

변형 스위스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에서 단체전 우승은 문리대학팀이 차지했다. 朴治文·申秉湜·姜瑩根(불문82-87)·安成文(정치83-87)·崔浚寧(국문87입)동문으로 구성된 문리대학팀은 지난 5회와 7회에 이어 세 번째 단체전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徐廷和회장에게 우승기를 전달받은 문리대학팀은 상패와 함께 1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개인전 최강조 결승전에서는 安正雄(화학82-87)동문과 韓正官(사회과학대 광역14입)군이 흥미진진한 승부를 펼친 끝에 韓正官군이 승리를 거뒀으며, 승패를 가른 후에도 두 선수가 머리를 맞대고 복기에 여념이 없는 등 바둑에 대한 열정으로 세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다. 韓正官군은 상패와 함께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받았다. (4면 기보 참조)

그밖에 개인전에서는 A조 鄭範勳(경영76-80)동문, B조 李秋夕(사회69-76)동문, C조 俞炳宇(섬유공학75졸)동문, D조 柳相俊(농경제사회10입)군, E조 魏在勳(의학52-58)동문, F조 禹珍泰(원자핵공학71-79)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徐廷和회장은 모교 바둑부 재학생을 격려하는 뜻에서 바둑부 李成鎬(생명과학13입)회장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전기주전자와 경품으로 태블릿 PC, 세탁기, 제습기, 블루투스 스피커, 고급 커피잔 세트, 吳然天총장이 제공한 디지털카메라와 삼익악기 金鐘燮회장이 제공한 기타 등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개인전 E조에 참가한 김원영(행정원70입)동문은 徐廷和회장이 협찬한 46인치 LED TV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秀)

각 부문별 수상자

■단체전

△우승: 문리대학팀 朴治文(국문68-79)·申秉湜(미학73-78)·姜瑩根(불문82-87)·安成文(정치83-87)·崔浚寧(국문87입) 동문 △준우승: 공과대학팀 崔勳(토목공학63-67)·金明根(건축77-81)·李鍾冕(자원공학79-83)·辛又煥(산업공학84-88)·김형균(컴퓨터공학01-11)동문 △공동 3위: 농업생명과학대학팀 金基沃(농생물71-78)·魯根洙(임산가공77-84)·李在喆(농업토목86-91)·洪順善(식물생산과학92-00)·지성욱(바이오시스템99입)동문, 바둑부 OB&YB팀 鄭恩碩(기계항공03-09)·李性輝(물리천문08-12)동문, 강지문(화학생물공학09입)·노시정(자유전공09입)·한석원(수리과학10입)군, 사범대학팀 崔安基(지리교육70-79)·韓勝洙(화학교육72-80)·李相奎(불어교육75-82)·柳忠均(수학교육78-82)·鄭原塚(지구과학교육80-84)동문

■개인전

▲최강조 △우승: 韓正官(사회과학대 광역14입)군 △준우승: 安正雄(화학82-87)동문 △공동 3위: 朴正烈(상학60-65)·金聖祐(불문74-78)·尹錫錫(화학80-84)·李光熱(의학01-07)동문 ▲A조 △우승: 鄭範勳(경영76-80)동문 △준우승: 白承桓(기계항공09입)군 △공동 3위: 鄭善진(응용수학71입)·白武欽(금속공학84-88)동문, 李榮俊(전기정보공학13입)군 ▲B조 △우승: 李秋夕(사회69-76)동문 △준우승: 錢章源(경제56-60)동문 △공동 3위: 張樂英(기계공학62-66)·張信泰(경제68-72)·김진태(자연과학94-01)동문, 徐明凡(국어교육12)군 ▲C조 △우승: 俞炳宇(섬유공학75졸)동문 △준우승: 具辰雄(섬유공학58-65)동문 △공동 3위: 金永煥(광산56-60)·李泰鉉(상학66-70)·金豐五(원자력공학68-72)·金植植(무역68-72)동문 ▲D조 △우승: 柳相俊(농경제사회10입)군 △준우승: 金星重(건축73-77)동문 △공동 3위: 金允桓(토목공학58-64)·柳承穆(식품공학68-72)·朴聖杓(지리70-74)·金杜勇(건축99-10)동문 ▲E조 △우승: 魏在勳(의학52-58)동문 △준우승: 金明淡(회화58-62)동문 △공동 3위: 李相完(의학55-61)·姜泰泳(기계공학56-61)·崔誠漢(상학56-60)·金興萬(무역66-70)동문 ▲F조 △우승: 禹珍泰(원자핵공학71-79)동문 △준우승: 尹鎮熙(GLP 18기)동문 △공동 3위: 宋柱哲(광산56-61)·李喆準(제약68-72)동문, 姜政浩(국어교육07입)·金頌浩(지구과학교육14입)군

무리수 없이 안전하게 白승리

동문 바둑대회
최강조 결승전 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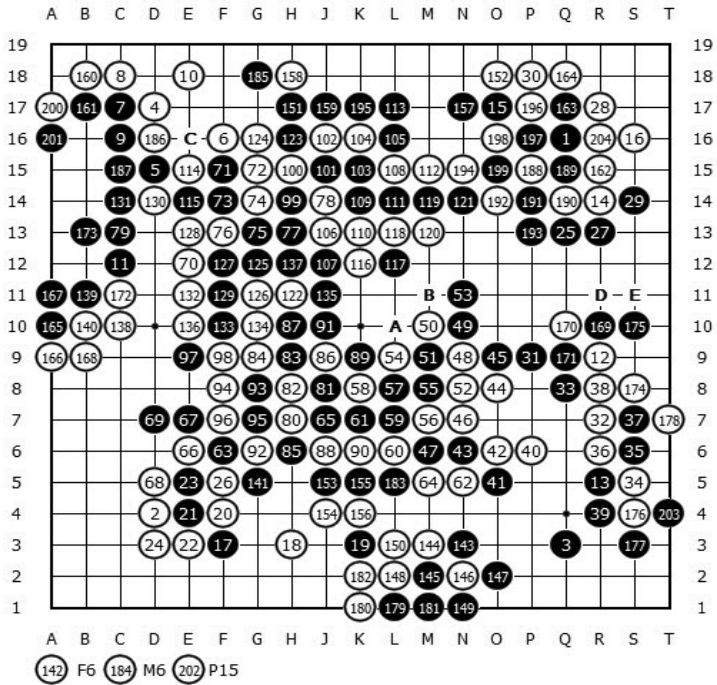
○ 韓正官군
● 安正雄동문

흑 19~31은 의욕적인 작전. 좌 하귀에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흑은 우변 백돌을 공격하는 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33에 34로 붙여간 수가 행마의 요령. 그냥 38에 잇는 것은 40 자리로 봉쇄당해서 좋지 않다. 흑도 37, 41이 최강의 공격으로 백도 부분적으로는 답답한 모습이다. 하지만 53이 느슨한 수. A로 먼저 단수해서 싸웠으면 서로 어려운 국면이었다. 이어서 둔 흑 55가 무리수로 64로 거북등 때림을 허용해서는 흑이 확실히 불리해졌다. 지금이라도 흑은 B로 단수해둔 뒤 좌변에 선착해서 후일을 도모할 자리였다.

흑이 69까지 좌변을 크게 키운 장면에서 70의 삭감이 지나치게 깊었다. 지금은 75 자리로 유연하게 삭감하는 정도로 충분한 형세였다. 흑이 71로 가르고 나오자 국면이 다시금 복잡해졌다.

흑 79는 99 자리로 찌르고 백이 막을 때 C로 호구를 쳐서 임시로 약점을 보강한 뒤 106의 곳으로 밀어갈 자리. 실전은 79까지 일견 백이 곤란해 보이지만 백이 80으로 붙여서 가르고 나오자 흑도 약점이 많아 막상 공격이 쉽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그래도 81은 82의 곳으로 찌히고 볼 자리. 이후에 백이 93 자리로 찌트거서 복잡한 싸움을 유도하겠지만 흑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실전처럼 96까지 좌변을 관통당해서는 백의 우세가 공고해졌다.

흑이 101로 끊어간 곳이 마지막 승부처. 백 108~112는 무리로 흑이 114의 단수를 받지 않고 123 자리에 끊어 두 점을 잡았으면 역전이었다. 따라서 108은 단순히



韓正官군(左)과 安正雄동문의 개인전 최강조 결승 장면

113에 찌트릴 자리였다. 그랬으면 흑도 중앙쪽 약점 때문에 강하게 받기는 어려워서 백이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전은 흑백이 실수를 한 번씩 교환한 결과 122로 흑이 곤란해졌다. 125로도 127 자리로 단수 치고 126의 곳으로 두는 것이 이득. 좌변이 깨끗하게 잡힌 실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명확하다. 이후 평범하게 끝내기가 진행됐지만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진 국면이다. 174로는 D로 단수하고 175로 늘 때

E로 막아서 2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집으로 득이지만 안전하게 둔 수이다. 흑 191은 던질 곳을 찾는 수. 198까지 꽃놀이패가 나게 되서는 흑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모습이다.



〈기보해설〉

吳 周 星
(몰리천문07-11)
프로 2단



徐致源동문의 저택에서 켈리 프라이즈 동문 밴드가 공연을 펼쳤다.

1백여 동문 가족 모여 여름파티

남가주지부 관악연대

남가주지부동창회 산하의 관악연대(연대장 고정범)는 지난 7월

12일 LA 칼라바사스에 있는 徐致源(공업교육69-74)동문의 저택에서 1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여름파티를 개최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시원한 수영

장과 멋진 풍광이 어우러진 뜰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나게 파티를 만끽했으며, 해가 진 후에는 동문들로 구성된 밴드 '켈리 프라이즈'의 공연이 이어지며 열기를 더했다.

관악연대는 모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해 입학한 75학번 이후 동문들 모임으로 2002년 남가주지부 동창회에서 젊은 세대들의 동창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했다.

1백50여 명의 회원이 연극반, 록음악 밴드, 사진반, 역사공부반, 화점회(화요일 점심 모임) 등의 소모임을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9년부터는 관악연대 회원들이 주축이 돼 아크로폴리스타임즈(www.acropolistimes.com)라는 온라인 매체를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인문·사회 강의 동영상 개발 강조

본회는 지난 7월 25일 모교 관악 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 에뚜아트룸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총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인 모교 李基俊前총장과 任廷基기획부총장을 비롯해 이화여대 高 健석좌교수, 한동대 崔道成부총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발전기금 金炯周상임이사, 李在影학장, 林哲一교육부처장이 참석했으며 본회 孔大植·辛鉉雄부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3일 모교 張素媛평생교육원장, 작곡과 李碩遠교수, 경영학과 宋在鎔교수, 종교학과 裴哲炫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수 강의 동영상 소위원회 제6차 회의의 논의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참석자들은 3차년도 사업 신청 현황과 동영상 개발 및 무인 촬영 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3차년도 교수 강의 동영상은 내년 1학기 공개를 목표로 올해 2학기과 내년 1학기에 걸쳐 촬영한다. 각 단과대학의 추천·공모 과정을 거쳐 비전임 교원 강의·대학원 강의 등 30여 개 강좌가 신청된 상태다.

강좌 신청 현황을 검토한 참석자들은 대중적인 수요를 고려해 인문·사회 분야의 교수 참여를 더욱 독려하고, 일반인에게 접근성이 높은 강좌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질 제고와 지식 나눔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춰 교수의 강의 능력과 강의 공개 범위 등에 따라 강의별로 지원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李基俊위원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향후 강의 평가 기준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일용 인력을 활용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무인 녹화시스템 구축에 더욱 역점을 뒀다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본회 부회장 추가 선임



黃祐呂 부회장



金基炳 부회장



趙允旋 부회장

본회(회장 徐廷和)는 최근 제25대 부회장에 黃祐呂(법학 65-69)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金基炳(행정대원 67졸) 롯데관광개발 회장, 趙允旋(의과 84-88)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黃祐呂회장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5선 국회의원 출신이며, 金基炳회장은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미림학원 이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행정대학원 동창회장을 맡고 있다. 趙允旋회장은 한나라당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18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했다.

權達述회장 선출 부산지부동창회



부산지부 동창회(회장 安永求)는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개선을

을 통해 신임 회장으로 조각가 權達述(조소62-66)동문(사진)을 선출했다. 또 安永求(공업교육65-69)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權회장은 신라대 예술대학 학장 및 부산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2014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들어 동문 간 소통의 창구가 되고 있다.

임원으로 黃義發(경영80-84)부연대장, 김영훈(법학99-05)·張紅(경제01-06)총무, 박승규(지

질86-90)화점회장을 비롯해 郭健容(사회78-82)영혼관리위원장, 池昌烈(사회복지83-87)오락위원장 등 10여 개 분과에 20여 명의 동문들이 봉사하고 있다. (秀)



期·지부 대표자 모여 친목 다져

간호대동창회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梁光姬)는 지난 7월 3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본관에서 동창회 이사, 기 대표, 지부 대표, 단체 대표 등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梁光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동창회가 조직된 지 60년이 되는 시점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선·후배, 지역 간의 소통과 교류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구슬이 서 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한다면 개 개인의 가치를 넘어 상상이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徐子源(간호77졸)강사가 연사로 초청돼 ‘서울대인의 금지와 가치창출’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펼쳤다.

특강 후 참석자들의 소개와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며, 이어 동문들은 저녁 만찬장소로 이동해 친교를 나눴다.

1만5천여명 수록된 회원명부 발간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晔)가 최근 ‘2014 회원명부’를 발간했다.

4년 만에 나온 명부에는 동문 외 모교병원에서 4년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의사들도 특별회원으로 포함시켜 총 1만5천여명의 명단이 수록됐다.

또 동창회와 모교 역사, 모교

병원 및 동창회 활동 내용을 70쪽 분량에 담았으며, 미주 동문들의 영문이름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朴容晔회장은 “회원명부는 선·후배 동문들이 서로의 근황을 알고 안부와 동정을 나누며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될 수 있다”며 “회원 모두가 이 명부를 동료애를 나누는 데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南>

10월 19일 일요일에 만나요

흙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

제35회 흙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행사를 오는 10월 19일 일요일에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미술관·박물관·규장각 등을 탐방하거나 관악산을 등반한 후 교내 버들골에서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 행사에 꼭 참석하셔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대회장소: 모교 노전강당 앞 버들골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 가족

△참가회비: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등

△경 품: ①승용차 ②스쿠터 ③기타 풍성한 경품 추첨 (徐廷和회장 승용차 제공)

△문의전화: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徐廷和
서울대학교 총장 成樂寅

모교 역사 자료 수집에 동문 1백31명 기증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 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7월 1~31일 6명의 동문과 교직원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6월 30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백 25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

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432호 7면, 433호 8면, 434호 9면, 435면 6면, 436호 4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백31명의 동문과 교직원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金東益(농화학52-56)동문: ‘學修簿’(1952년), 수원 농과대학 사진(1952년), 졸업증서 등(사진) ▲故 李相翊(국어교육54-58)동문: 앨범류, 원고, 관악사 사감시절 기록 등 ▲李鍾華(약학55-59)동문: 총동창회 이사 선임장 ▲李起台(불어교육

59-67)동문: 사대 학보, ‘청량원’, ‘교육’ 등 ▲朴成桓(천문기상60-65)동문: 부산 피난 시절 모교 본부 이미지 파일 ▲趙文英 前학생처 장학과 직업보도담당자: 대학생 거리질서봉사활동 출석부(1982~1984년) 등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관류: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2014년 12월 31일까지 (마감기일 연기)

3. 수집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mail: webmaster@snu.ac.kr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임성용 과장 핸드폰: 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02-880-8819 팩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전 구성원 한마음 축제로 단합

보대원동창회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裴吉漢)는 지난 6월 28일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제8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보건학 박사회(회장 林國煥)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裴吉漢회장, 姜寅求 전임 회장, 林國煥박사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趙炳熙원장,



HPM동창회 朴浩永회장이 權彝赫 명예교수(左)에게 李仲燮의 '황소' 작품(한정판)을 선물했다.

權彝赫 명예교수를 비롯해 석사동문회, 보건의료정책 최고위과정(HPM)동창회,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 최고경영자과정(AMPFRI)동창회 등에서 총 2백10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관악산 산행과 박물관·규장각 등을 관람한 동문들은 220동 야외광장으로 집결해 뷔페 음식과 음대 남성중창단의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을 즐기며 친목을 다졌다.

裴吉漢회장은 “한마음 대축제는 말 그대로 석·박사동문회부터 최고위과정 동문들이 모여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월례모임서 11월 학술대회 논의

함춘여자의사회

함춘여자의사회(회장 白賢旭)는 지난 7월 14일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尹惠淑·張靑淳·金明子동문을 비롯해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모임을 가졌다.

曹美卿(의학80-86)학외총무이사가 기획한 이날 모임은 흥익대 崔仁善교수의 개인전 ‘최인선의 미학 오디세이 25년’ 관람과 ‘미술품 컬렉션 가이드’ 특강, 월례회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월례회에서는 오는 11월 1일 ‘성차의학(Gender difference medicine, Gendered Innovation)’이란 주제 하에 열리는 학술대회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1973년 발족된 함춘여자의사회는 1천4백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회, 월례회, 가을 학술대회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2007년부터 3명의 모교 후배에게 4백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 공헌활동으로 장애우 지원 시설인 ‘임마누엘의 집’을 후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스마트폰(안드로이드

등)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원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를 다운받은 후 회원등록 절차를 거쳐 승인받으면 바로 1천4백여 회원의 동정과 동창회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선후배 모여 야구관람 토목공학과동창회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李淳柄)는 지난 6월 27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야구경기를 단체로 관람했다.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한 야구경기 관람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진행하면서 동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창회는 매 행사에 선착순으로 50여 명의 동문에게 2인 티켓은 물론 간식까지 제공해 동문 가족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

야구 관람 행사 외 동창회는 매년 바둑·등산대회와 가을 흙커밍데이 등을 통해 동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동부건설 李淳柄(토목공학68-72)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金讚淑·金周煥·崔楠燮·朴健培·李壽久·權泰鎬·李在一동문

치협 崔楠燮회장 축하연 치대·치대원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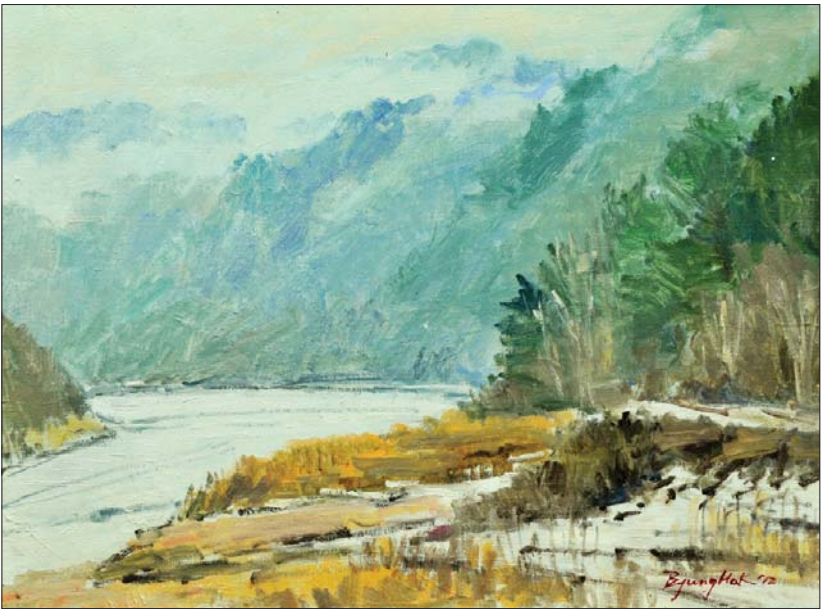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7월 17일 동창회 원로들을 초청한 가운데 최근 제29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에 당선된 崔楠燮(치의학73-79) 동문의 축하모임을 가졌다.

崔楠燮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을 맡은 동문들은 “동창회장님과 동창회 고문 및 임원께 감사드린다”며 “치과계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양구38휴게소에서 본 거울풍경, oil on canvas, 162.5×130cm, 2012년

玉先花동문 특강 생활대동창회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崔明珍)는 지난 6월 28일 모교 생활과학대학 222동 崔炳五홀에서 모교 소비자아동학부 玉先花(가정교육 68-72)교수를 초청해 ‘가족학의 현장은 어디’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가정관리학과동창회(회장 姜美惠) 주관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는 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특강을 들은 후 소담마루 식당으로 옮겨 음식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는 매년 2~3회 학과별로 돌아가며 강연회를 열고 있다.

李炳學作

〈작가약력〉

- ▲1966년 모교 회화와 졸업
- ▲1990~1992 국립 현대미술관 초대작가
- ▲한국 현대미술전,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기념 초대전, 서울대 개교 50주년 기념 초대전, 한-터키 현대미술교류전, 제6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초대전, 아시아미술 초대전, 웨필드 미술대축제 등 국내외 초대전 및 개인전 다수
- ▲現한국미술·한국기독교미술·상형전 회원, 미대동창회 감사



여성 모임·고문단 회의 개최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洪起俊)는 지난 7월 16일 서울 중구 남포면목에서 여성 동문들을 초청해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洪起俊회장, 孫錫源부회장을 비롯해 朴順子·李榮喜 원로 동문 등 20여 명의 여성 동문이 참석했다.

한화케미칼 고문인 洪起俊회장은 여성 동문 후배들에게 기업 CEO로서 사회생활에 대한 덕담과

함께 “기업별, 지역별 동문모임을 통해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여성 모임 외에도 최근 한 달간 운영위원회, 고문단 회의 등을 열어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일환으로 젊은 동문 참여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www.chemeng.or.kr) 커뮤니티 코너에 ‘선·후배님 도와주세요’라는 메뉴를 개설했다. 이곳에 고민·진로 상담, 구인·구직 등의 내용을 올리면 6명의 자문위원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全聖喆동문 강연 정치·외교학부동창회

정치·외교학부동창회(회장 金允壽)는 지난 7월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세계경영연구원(IGM) 全聖喆(정치69-73)회장을 초빙해 정례조찬회를 개최했다.

全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세월호 참사는 가치관만 있고 오직 돈벌이만을 위해 편법, 탈법을 서슴지 않았던 청해진해운과 승객을 내팽개치고 제 목숨 건지기에 급급했던 선원들의 태도에서 일어났다”며 “눈앞의 이익에만 혈안이 됐던 청해진해운이 결국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EO와 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같도록 하는 게 가치관 경영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기업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경영목표가 분명해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南)



과정개설 10주년 기념음악회

ACPMP동창회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鄭秀顯)는 지난 7월 1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鄭秀顯회장을 비롯해 金容珏수석부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金興洙(경제78-82)원장 등 3백50여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과정개설 1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2004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모교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개설한 ACPMP는 지난해 10기까지 6백5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기 수료 이후 조직된 동창회는 매월 조찬 포럼과 총회, 음악회, 등산, 골프 등의 행사를 열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매년 봄에 열리는 야외음악회는 3백여 명의 동문 가족이 모여 끈끈한 결속력을 자랑하고 있다.

ACPMP 김종섭 지도교수는

“정·관계 인사, 대형건설사, 증권건설사 등의 CEO 및 임원급 건설인으로 구성된 동창회의 끈끈한 결속력이 ACPMP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과정 10주년 히스토리 영상을 상영했으며 참석자 모두에게 기념집을 배부했다. 또한 문화관 내부에 전체 동문 사진과 주요 행사 사진을 전시해 10년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마련했다.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교 음대 남성 중창단 등이 공연을 펼쳤다.



자작나무숲서 ‘힐링’

SPARC동창회

과학기술혁신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朴煥熙)는 지난 7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에서 2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정기산행을 했다. (사진)

영등포에서 집결한 동문들은 강원도로 이동해 자작나무 숲의 정취를 즐겼으며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다.

제2회 골프대회 개최

ABKI동창회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동창회(회장 全益寬)는 지난 6월 26일 경기도 광주시 이스트밸리CC에서 76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全益寬회장과 안태국 수석부회장 등 20여 명의 동문이 3천여 민원의 금품을 협찬했다.

부자 자산관리 특강

IFP동창회

미래지도자 인문학과정동창회(회장 金光憲)는 지난 7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신양인문관에서 모교 인문대학 裴永洙학장, 영어영문학과 孫昌庸교수, 국어국문학과 金玄·趙顯高교수, 황극인(5기)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화학습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서성식(10기)부사장이 ‘1% 부자들의 자산관리 특강’을 주제로 진행했다. <邊>



산정호수 트레킹·고석정 관광

AFB동창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文正旭)는 지난 7월 12일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에서 김관택(10기)산악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등산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산정호수 둘레길 트레킹과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졌으며 한탄강변의 고석정을 관광했다.

또 지리산 둘레길 걷기, 여성원우회와 동반산행, 약초산행 등 다

양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송민순(11기)여성원우회장과 김병희 9기 원우회장이 금품을 협찬했다.

동창회는 올해 10월 동문 골프대회, 12월 송년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리산 여름 산행

ASP동창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崔巨勳)는 지난 7월 20일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칠선계곡에서 崔巨勳회장, 鄭元暢사무총장

• 못 가본 곳에서 못 해본 일?

어느 날 공상에 잠긴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난 한 번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자 아내가 반갑다는 듯 말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예요. 부업에 가서 설거지 좀 해요.”

• 눈썰미

남편이 아내 생일선물로 예쁜 속옷을 사주기로 맘먹고 백화점에 갔다.

“아가씨. 부인용 팬티 하나 주세요.”

“아내분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사이즈라... 잘 모르겠는데, 아! 24인치 텔레비전 앞을 지나갈 때면 화면이 안 보여요.”

<독자제보 환영>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정보회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푸리값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고급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클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共同物流시리즈 ⑥

www.LogisALL.com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초원을 향한 물소떼의 목숨을 건
도하는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공영 - 바로 공동물류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시아 물류를 선도하는
종합공동물류기업으로 성장해 온 로지스올 -

로지스올이 종합공동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결코 혼자 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탕에는 기업과 국가의 물류경쟁력 향상이란 사명감과 고객과 함께
모두가 공존공영해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로지스올은 ULP(Unit Load Pool)시스템을 바탕으로 동북아 국제 SCM서비스를 구축,
한·중·일의 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공동물류의 선도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SCM의 모든 과정을 고객과 함께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로지스올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서
물류공동화, 물류합리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LogisALL
Total Logistics Alliance

SPARC동창회 朴煥熙회장 (아이넷방송 대표)

올해 2월부터 자연과학대학 과학기술 혁신최고전략과정 (SPARC) 동창회장을 맡아 운영 중인 아이넷방송 朴煥熙(20기)대표를 지난 7월 1일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취임 후 동창회의 변화라면,

“사회 분위기상 많은 활동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지난 4월 동창회 각 국장과 상임부회장들과 운영회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창회 ‘상조국’을 만들었습니다. 회원들끼리 김홍사를 함께 나누며 협력과 친목을 나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회원 소개를.

“주로 1차 생산·제조업체 대표들이

많지만, 그 외에도 법조인, 고위공무원, 국가기관·학계 관련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은 꿈꿔왔던 자연과학에 대한 동경을 간직한 분들이 많아서 다른 모임보다 순박하고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덕분에 동창회에 전반적



기)동문이 이끌고 있습니다. 소수의 여성회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열성적으로 매달 모임도 가지며 동창회 전체의 결속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吳鍾南(행정70-75·2기) 사무총장이 ‘SPARC리더스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동창회

“분기별 리더스포럼 열어 유대 강화”

으로 학구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동창회 특징은.

“우리 동창회의 자랑은 金恩英(17

활동에 적극적인 분들을 초청해서 연 4회 조찬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상조국과 여성국, 그리고 리더스포럼까지 이 세 가지 조직이 동창회와 긴밀한 연

대로 상호보완하며 활성화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아이넷방송’은 어떤 회사인지.

“젊은 세대만을 위한 음악 일색에서 벗어나 인방의 주인인 기성세대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어 2002년 설립한 가요전문 방송채널입니다. 5만여 편의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朴회장은 동의대 대학원에서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자문위원, 문화예술인 나라사랑회 명예회장 등을 맡고 있다. 출소자들의 사회복귀 사업을 후원해 법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으며, 저서 ‘100세 시대 부부를 위한 힐링 건강법’의 인쇄 전액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아직 빛을 보진 못했지만, 작사가로 활동하며 가요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邊)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FB동창회 文正旭회장 (대원에프앤드씨 대표)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AFB) 동창회 文正旭(9기)회장은 소탈한 성품에 동창회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동문이다. 오랫동안 9기 동기회장, 골프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 앞장서 ‘2009년 AFB 패션경영인대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만난 文회장은 2시간에 걸쳐 동창회에 대한 무한 사랑을 드러냈다.

－ 적극적이라 느낌이 드는데.

“말은 일은 열과 성의를 다하자는 게 생활 신조입니다. 9기 동기회장을 맡아 가장 단합된 기수로 만들었습니다. 동창회 골프모임을 이끌 때도 즐겁게 일했구요. AFB



하면 빌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자주 모이고, 손이라도 한 번 잡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패션의류업계 종사자라면 반드시 들어



FNP동창회 崔順泰회장 (주영 대표)

－ 동창회 특징이라면.

“다 동창회에 비해 회원들이 몸담고 있는 업종이 식품영양산업이라는 한 곳에 몰려있습니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 원재료－제품의 공급과 수요가 동창회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연결된 이 공동체 안에서 사업에 직접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은 각 기별교류가 활발했으나 이제는 전체 동문의 결속력을 더 다지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밴드’와 ‘카오톡’ 메신저를 교류의 매개체로 활발히

“조직화·회원간 신뢰형성 최우선”

과정 시작할 때부터 사업도 잘돼 늘 고맙게 생각하며, 7백여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왔다는 마음이 큼니다.”

－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난 1월 회장 취임 후 동창회 조직 정비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각 기수별 회장, 사무총장, 골프회장, 등산회장, 여성 회장들을 따로 모아 5개의 그룹을 별도로 구성했죠. 그와 동시에 기별, 지역별 모임에 가능한 참석해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또 포럼 등 행사 후에는 전 회원들이 돌아가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수하는 전통을 만들었고요.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기 위해선 스킨십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 동창회 특징이라면.

“회원의 95% 정도가 의류·섬유·패션업계 종사자들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습니다. 부자재가 급하게 필요

오고 싶은 모임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동창회를 통해 회원 간 협업이 이뤄져 명품 브랜드도 나오길 희망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요. 크고 작은 모임에 열심히 뛰어다니며 밥도 사면서 모든 회원들이 ‘정말 이 모임에 오길 잘했구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영천 출신인 文회장은 영남대에서 섬유공학을 전공했다. 1995년 의류업체인 대원에프앤드씨를 설립해 빈폴, 아디다스 등의 브랜드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본사 직원만 40여 명이며, 5개 공장을 운영하며 2백50억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외활동으로 한국청년회의소 외무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부 법사량위원회 부회장, 성동구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골프를 즐기며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南)

“출발은 늦었어도 기반은 튼튼히”

－ 취임 후 근황은.

“취임 직후 그동안 갖춰지지 못했던 임원진을 구성했습니다. 친목단체지만 동창회가 원칙 없이 돌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 기수에 회장, 사무총장, 골프·등산회장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운영을 대비해 차기 회장 기수인 4기에서 수석부회장과 부사무총장을 뽑아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잘 이끄는 것은 물론, 잘 물려주는 것도 리더십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동창회 소개를.

“현재 5기까지 수료했으며, 3백6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중행사로는 3월 정기총회, 5월 체육대회를 진행했으며, 10월 골프대회, 11월 조찬강연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상조회를 조직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역사가 깊지 않은 동창회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동창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튼튼히 다져놓으려 합니다.”

崔회장은 경희대 대학원에서 조리외식경영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7년 단체급식 식품제조 업체인 ‘주영’을 설립해 현재 2백여 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다. 매출은 연 1백억원 규모. 시흥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법 조정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슬하에 모교를 졸업한 金秀嬭(성악96-00)동문을 비롯해 1남 1녀를 두고 있다. (邊)

KING vs KING

HERITAGE

Chess Edition



화제의 동문

天古법치문화재단 宋宗義이사장

‘밤나무 검사’로 잘 알려진 宋宗義(법학 59-64)前법제처장이 지난 6월 공익법인 天古법치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참된 공직자를 발굴해 바닥으로 떨어진 이들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다. 재단 설립을 위해 밤농사로 모은 8억5천만원을 출연했다.

宋동문은 제1회 사법고시에 합격, 1969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검장,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 후 안락한 노후가 보장되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충남 논산으로 낙향해 밤농사를 지어왔다. 1996년 말 법제처장으로 발탁돼 1년4개월간 공직에 머문 이후에도 자연인으로 돌아가 安分知足의 삶을 실천하며 후배 검사들의 본이 되고 있다.

변호사 대신 낙향해 영농활동

지난 7월 22일 충남 논산시 양촌면 양촌영농조합법인에서 만난 宋동문은 대쪽같은 선비의 품모가 느껴졌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드링크 한 병과 자서전 ‘인생연가’, 그동안 보도된 자료를 건넨다. “여기에 내 모든 이야기가 다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밥이나 먹으려 갑시다.”

구내 식당으로 가는 길, 영농조합의 규모가 생각보다 컸다. 대지 약 1만㎡(3천여



宋宗義이사장과 부인 文正子동문

평)에 13개 동의 건물. 어지간한 중소기업 규모다. 연간 매출 규모가 1백억원 정도 된단다. 2010년에는 ‘3백만불 수출탑’도 받았다. 밤 이외에 딸기, 포도, 사과 등을 가공해 잼의 원료를 만든다. 딸기의 경우 전국의 약 7%가 양촌에서 생산되는데 이 중 시판되지 못하는 가공용 딸기 전량을 이곳에서 처리하며 양촌면 농민들의 큰 수입거리가 됐다.

宋동문은 “월남 파병을 갔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황폐한 산야를 보고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다짐을 한 게 오늘에 이르렀다”고 했다.

“베트남의 울창한 숲을 보다 황토색 민

둥산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군요. 나무 심을 기회를 엿보다 대전지검 강경지청으로 발령 받았을 때 이곳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양촌면 석서리 일대 국유림을 빌려 밤나무 1만여 주와 낙엽송 등을 심었죠. 당시 정부에서 유실수를 권장해 밤나무를 심게 됐고요.”

부산지검 시절 여기서 생산되는 밤을 보관할 저장창고를 지으면서 하나하나 시설을 늘려가다 지금의 영농조합을 꾸리게 됐다. 양촌영농조합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2012년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지정되고 충남의 유망중소기업으로도 선정됐다.

농사로 번 돈으로 공직자 지원 재단 설립

“참된 공직자 격려 필요”...8억5천만원 출연

宋동문은 “‘돈 벌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망하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일해왔다”고 했다.

점심 후 宋동문은 영농조합 공장 한쪽에 마련된 천고법치문화재단 사무실로 안내했다. 天古는 宋동문의 법명인 天目과 아내 文正子(약학63-67)동문의 법명인 古佛法에서 따왔다. 사무실 한쪽 벽, 강판에 새겨 걸어놓은 창립선언문에는 ‘법은 인간 정신 문화의 자랑스러운 유산, 법치는 민주국가의 으뜸가는 이념’이고 ‘법치주의를 구현할 국가정책을 개발하고, 법치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한 뛰어난 인재를 현창함은 이 시대의 당연한 소명’이라고 적혀있다.

“법치를 구현하는 참된 공직자는 우리 사회의 길잡이로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을 칭찬하는데 인색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격려해 줘야지요. 정부에서 주는 훈장 등이 있지만 이 상은 국민이 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재단 임원 전원이 법대 후배

재단은 올 연말에 귀감이 될 공직자 3~5명 정도를 선발해 포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순금 30돈 이상으로 만든 메달과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과일 제품을 평생 보내줄 계획이다.

재단의 임원으로 법대 후배인 金慶漢·金東建·安炳禹·宋光洙·申相圭·尹長根동문 등이 함께했다. 이들 대부분이 법대산악반 ‘한오름’ 후배들이다. 宋동문은 “후배들이 기금 출연도 하고 싶어했으니 말렸다”고 했다.

“제가 출연한 재산이 보장되었지만 앞으로 외부의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한 가지, 재단에 대한 격려와 성원, 그것만으로도 과분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와 ‘밤나무 검사’가 딸에게 쓴 ‘이라는 부제가 달린 ‘인생연가’를 펼쳤다. 먼저 하늘로 보낸 아들을 가슴에 품고, 미국에 사는 딸 宋美賢(심리89-93)·사위 趙成堧(사법85-89)동문에게 보낸 글이다. 그 속에 宋동문은 시인이고 스님이다.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으며 지인들 사이에서는 “풍수지리도 일가를 이뤘다”는 평이 있다. (南)

스포츠매니지먼트 姜 竣 鎬교수

“이제 우리나라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교 체육교육과 姜竣鎬(체육교육86-90)교수는 모교 글로벌 스포츠매니지먼트 석사과정에서 운영하는 ‘드림투게더 마스터’ 프로그램의 취지를 짚고 굵게 요약했다. 정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은퇴 선수, 스포츠행정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등록금과 체재비 등을 전폭 지원하며 차세대 글로벌 스포츠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모교 국제스포츠행정과 양성사업단 단장이자 이 과정의 주임교수를 맡은 姜교수를 지난 7월 22일 관악캠퍼스 본관에서 만났다.

작년 9월에 첫 기수가 입학한 후 1년의 과정을 지켜본 姜교수는 “진정 ‘글로벌’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왔다”며 지난 소회를 밝혔다.

글로벌 학생·교수진 한곳에

“작년 여름 급하게 특별전형으로 1기생 모집을 진행했는데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1백55명이 지원했어요. 인도네시아, 몽골 등 18개국에서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올해 2기 모집엔 동남·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36개국에서 지원해 20명을 뽑았습니다.”

지원자들에게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자 88올림픽의 성공,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 희망의 나라다. 그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

유하는 일은 글로벌 선도 대학을 지향하는 모교의 국제적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기대에 부응하듯 교육과정은 혁신적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스포츠 선진국 교수들과 모교 체육교육과·국제대학원·경영대학·행정대학원 교수, 타 대학 교수들로 총 30명의 국내외 최고 교수진을 구성했다. 스포츠 인문학·마케팅·거버넌스·국제협력 등 10가지 테마의 교과목에 커리큘레이션 스킬 및 리더십, 한국어까지 가르치니 학생들은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다. IOC위원 등 명사

특강과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과정 현장 체험 같은 귀중한 기회도 제공한다. 姜교수는 “불확실성 시대를 헤쳐 나갈 ‘문제 해결형 리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고 했다.

“스포츠시설을 지어주거나 물품을 원조하는 것보다 인재를 기르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국제 스포츠 발전과 스포츠를 통한 개도국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에 IOC와 UN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든 장기적으로 잠재 시장 개척과 국제 스포츠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이죠.”

姜교수는 어려서부터 수영, 축구, 야구



모교서 개도국 스포츠행정 인재 양성

“지구촌 스포츠 발전 이끌 선진국 대열로”

등 여러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 때 국가대표 선수의 지도로 시작한 수영은 자기 수련을 위해 중·고등학교 때도 꾸준히 했다. 매일 혼자 1km씩 새벽 수영을 하고 등굣길에 나서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이 가득했다.

국내 스포츠매니지먼트 선구자

“스포츠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회의 인적 자본이 강화되죠. 또 룰을 지키고 팀워크를 배우는 건전한 가치가 삶에 녹아들어 쌓이면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 됩니다. 스포츠는 저비용 고효율의 국민행복 달성 수단입니다.”

姜교수가 모교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을 무렵, 냉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국가 주도의 메달 경쟁에서 벗어나 스포츠가 산업화되기 시작했다. 뚜렷한 변화의 물결을 목격한 그는 주저없이 목표를 정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외튼스쿨에서 MBA, 미시간대에서 스포츠경영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스포츠매니지먼트 전문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90년대 朴贊浩·차세리 선수의 활약과 월드컵 유치를 통해 스포츠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姜교수는 2011년부터 모교에 몸담으며 국내 스포츠 경영 분야 개척자로서 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姜교수는 오는 8월 말 지난 4년간 수행한 모교 기획처 협력부처장으로서의 보직 임기를 마친다. 소감을 묻자 “부족한 제가 서울대 전체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다”고 답한 데 이어, 언론홍보 등의 대외업무가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원래 술을 잘 못했는데, 업무 특성상 주량이 조금은 것 같다”며 웃음지었다.

“모교의 책무는 책임감 있고 헌신하는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스포츠행정가를 키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스포츠계를 이끌도록 한다면 모교의 존재가치와도 부합하는 일이 될 겁니다.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대가 세계 스포츠네트워크의 중심점이 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秀)

화제의 동문

www.kolonsport.com

 KOLON SPORT
Your best way to nature

“원로 의원들의 지식 노하우 활용해 정책대안 제시”

동문을 찾아서

대한민국헌정회 睦堯相회장



대담 : 金光德(인터넷한국일보 상무 겸 뉴스본부장)논설위원

국가의 주요 현안이나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곳이 있다.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지혜가 집결된 대한민국헌정회가 바로 그 곳이다.

지난 7월 29일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실에서 2012년부터 2대째 헌정회를 이끌고 있는 睦堯相(법학55-61)회장을

만나 헌정회의 역할과 주요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睦회장은 “헌정회는 우리나라 민주화와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신 전직 국회의원들 1천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 그 분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국정운영이나 헌정 발전에 필요한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헌정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헌정회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근거해 조직된 단체로 전직 의원은 자동으로 회원이 되고, 현역 의원은 특별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헌정회의 회원 중에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을 지내신 분들,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역임하신 분들, 여야 각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지내신 분들을 비롯해 다선 의원들과 초·재선 의원들이 고루 포진돼 있습니다. 헌정회는 우리나라 민주헌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의제도 연구와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1천97명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만 해도 1천2백여 명 정도 됐는데, 다들 연세가 많다 보니 몇 년 사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 지난 2012년 회장 취임 시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셨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원로 회원 중에는 과거 선거 때 재산을 많이 쏟아 붓고 가난해진 데다 현재 나이가 들어 건강도 좋지 않은데 소득도 없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복지기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足額不及입니다. 또 하나 작고하신 회원들을 위해 국립묘지와 같은 규모와 체제를 갖출 수는 없어도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묘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장소 마련 등 여러 어려운 문제로 여의치 않습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대외적으로 본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자체 조사 결과 집이 없어 자는 곳이 변변치 않거나 몸이 불편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회원분이 2백여 명 정도 됩니다.”

— 정치채신 논의 때마다 논란되는 것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선 지원금의 성격부터 규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연금이 아니라 과거 이 나라의 민주화, 산업화 발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한 정치원로들에 대한 보훈적 차원의 품위유지비입니다. 기존에는 8백여 명이 받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직 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에 대한 최소



연로회원 지원금, 연금 아닌 보훈적 차원 ‘五賊詩와 다리誌 사건’ 소신 판결로 유명

한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올해 초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현재 진행 상황은.

“朴槿惠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란 말씀을 하신 뒤 국민들과 사회 각계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도 정부와 발맞춰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발족한 통일준비위원회의 자문위원에 헌정회 단체이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헌정회 회원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통일방안이나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원로로서 현 정권 및 여야를 평가해 주신다면.

“朴槿惠정권이 인사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기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이 큼니다. 기강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

• 睦회장은

1935년 경기 동두전에서 태어나 모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거쳐 모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3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3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197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12·15·16대 4선 의원을 지내며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통일민주당 인권옹호위원장, 신한국당 원내총무,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 상임고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접입니다. 또한 여야가 너무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서로 일방적으로 자기주장만 밀어붙이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공격일변도의 국회운영은 빨리 지양해야 합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판사, 4선 국회의원, 원내총무, 정책위 의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경력이 화려하신데요. 좀 더 기억에 남고 보람이

‘다리지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죠. 저 자신도 어느 정도 더는 판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판결 뒤 유신 헌법이 공표되자마자 사표 압력이 내려와 법복을 벗고 서울에서는 못하게 규제하는 바람에 초임지이고 처가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서 변호사를 개업하게 됐지요.”

— 법학과에 입학한 특별한 동기가 있는지.

“저는 동두천 읍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골짜기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순경이나 면서기 등의 관리들이 오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정치가가 돼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정치학과를 지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면담과정에서 법대를 추천하는 바람에 진로가 바뀌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동문 및 학교 관계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내에서 모교가 가장 으뜸가는 대학이라고 자부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멀다고 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들은 많은 연구활동으로 실적을 쌓아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운 미래에 모교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길 바랍니다. 盧武鉉정권 당시 ‘서울대 폐지론’이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 봅니다. 오히려 세계적인 우수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지요. 이에 대해 재학생뿐만 아니라 동문들도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모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金南柱기자·정리= 林香默기자)

있던 일이 있다면.

“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법이라든지, 많은 정치개혁을 바로잡기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해봤으나 여야 간의 이해가 상충돼서 제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는 바람에 올바른 결론을 내놓지 못했죠. 위원장을 두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과실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아직도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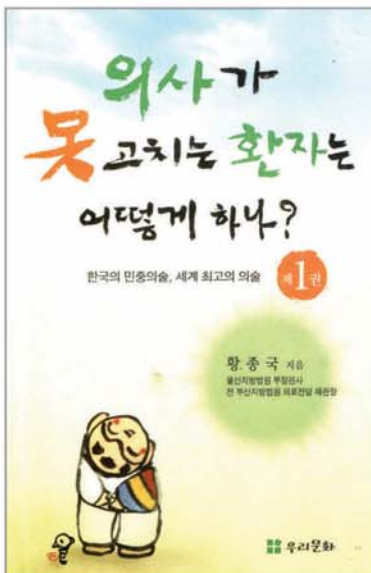
— 판사 시절 ‘오적시와 다리지 사건’ 등 공안사건에 대해 소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하시죠.

“두 사건 모두 ‘독재 체제 타도, 부정부패 척결’ 등 당시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표현이 과격하다 보니 金日成과 북한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반공법으로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읽어보고 또 따져봐도 북한 金日成을 위해 그러한 내용을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서서 ‘오적시 사건’의 피고인은 전부 보석으로 석방하고,

한우물®

[전기(분해식)정수기]

「한우물을 만나는 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면서 값이 가장 싸고 인간의
혼이 담긴 정수기가 바로 한우물 정수기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전 인류가 활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빨리 이 정수기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여
세계의 자랑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이 책의 206p~207p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황종국 지음: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의료전담 재판장)

[황종국 변호사는 부산지방법원의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강연과 집필을 통해 민중의술
합법화와 의료개혁 운동을 하였다.]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역삼투압식 정수기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면서 한우물도 역삼투압식
정수기가 아니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우물 정수기는 성분과 용도가 다른
세가지 물이 동시에 나오는, 지구상에서 오로지 한우물만의 독특한 전기 분해식 정수 방법을
쓰는, 우리 정수기입니다.

28년 동안 영업조직 없이 입소문만으로
보급돼 온 것에 대하여 다들 놀라워 합니다.



마셔보시고 결정하세요!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물 맛이 뛰어난 한우물의
전해액알칼리수(500mlX4병)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한우물

판매회사 (주)대정유통
www.hanumul.co.kr

1588-4804

아크로폴리스

강건너집

녹두거리

순대골목

51번, 52번 버스

입사

첫 명함

승진

성공

안정

리더

시대의 언덕을 넘어
세상을 이끌어온 당신당신께 오마주합니다
탄생 **K9** 2014더 높아진 가치
4,990만원 3.3 프레스티지 탄생

The Power to Surprise

Upgraded Prestige K9 2014



■ 중후하고 우아해진 라디에이터 그릴



■ 정제되어 더욱 세련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 세상을 더 넓게 보는 파노라마 선루프



■ 고급스런 디테일로 완성된 인테리어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고객센터 및 스마트컨설팅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킵니다.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K9 V6 3.3 GDI 18인치 타이어 자동 변속 : 복합 연비 9.6km/l (도시 연비 8.1km/l / 고속도로 연비 12.3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870kg | 복합 CO₂ 배출량 186g/km - 4등급
 K9 V6 3.3 GDI 19인치 타이어 자동 변속 : 복합 연비 9.4km/l (도시 연비 7.9km/l / 고속도로 연비 12.0km/l) | 배기량 3,342cc | 공차중량 1,870kg | 복합 CO₂ 배출량 190g/km - 4등급
 K9 V6 3.3 GDI 19인치 타이어 자동 변속 : 복합 연비 9.3km/l (도시 연비 7.8km/l / 고속도로 연비 12.0km/l) | 배기량 3,778cc | 공차중량 1,910kg | 복합 CO₂ 배출량 192g/km - 5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부하,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친환경 경제로전으로 연비는 높이고, 기동성은 아끼고

KIA의 신개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Smart Q Service
 원격케어/영상진단/방문진단/Door to Door/긴급출동
 (인터넷 예약 : q.kia.com)

신임 成樂寅총장 취임사 <요지>

저는 총장으로서 서울대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SNU with People), 우리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키고(SNU with Pride), 변화된 환경에서 세계 무대로(SNU with World)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법인 전환 이후 서울대학교의 좌표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서울대형 발전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치의 이념에 따라 법단체제의 안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불합리한

과거의 관행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본권형 운영체계에 입각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계 학술연구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며, 세계 대학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지식창조의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와 세계의 미래를 짊어준 창의적 역량과 의지가 굳건한 ‘선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학문의 벽을 뛰어넘는 탈경계형 통합적 지성을 함양한 인재, 세계시민으로서의 품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인간성 회복과 인간존엄성을 중시하는 교육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대학이자 대한

국민 모두의 대학이기에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입시와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화초 같은 인재 못지 않게 국화와 같이 늦게 피지만 傲霜之節의 기개를 지닌 인재를 널리 발굴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선한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민족의 숙원인 통일 대업의 길에 서울대학교가 연구의 중심 축이 돼 통일한국의 국가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한국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는 지구촌을 향해

당당히 포효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글로벌 정체성과 브랜드를 재정립해 서울대학교형 교육·연구모델 확산의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 ‘소통과 화합으로 변화와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저는 격변하는 전환기에 자기 혁신에 기반을 두어 구성원들과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진정성과 노력성을 존중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진실하고 겸손하며 선한 자세를 잃지 않고자 합니다.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천적으로 행동하며, 화합과 통합을 실천하는 총장이 되겠습니다.



모교 成樂寅총장 취임식에서 본회 徐廷和회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대인은 국가와 민족, 사회의 미래에 절대적 책임이 있다”며 “선견지명이 있는 세계적 인재를 양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모교 제26대 成樂寅총장 체제 출범

成총장 “법인 이후 모교의 좌표 확립이 최우선”
徐회장 “세계적인 인재 양성 위한 지원에 전력”

모교 소식

지난 8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강당에서 제26대 成樂寅총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본회 徐廷和회장을 비롯해 孫一根상임부회장, 李海遠·成百詮·閔庚甲·李大淳·孔大植·鄭潤燮·姜寅求·李炯均·卞柱仙·金基炳·金東建·金仁圭부회장, 朴英俊감사, 본보 金哲洙·李慶衡·徐玉植논설위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또 모교 權舜赫·李賢宰·朴奉植·趙完圭·李壽成·鮮于仲皓·鄭雲燦·吳然天 前총장, 朴容喆이사장, 경인교대 李在熙총장, 서울과학기술대 南宮權총장을 비롯한 타 대학 총장과 모교 보직교수, 재학생, 주한 독일·프랑스·이스라엘·네

팔·브루나이 대사, 五鉉스님, 朴昌植·曹海珍·李潤錫국회의원 등 교내외 인사 5백여 명이 참석해 成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취임식은 金秉文교무처장의 신임 총장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成총장 취임사, 權舜赫 前총장과 본회 徐廷和회장의 축사, 吳然天 前총장의 대학 상징열쇠 전달, 꽃다발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成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숏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모교는 국가발전을 견인해온 인재들의 산실로서 조국의 나아갈 길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법인 전환 이후 모교의 좌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의 미래상

구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대학의 창조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모교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서울대형 발전모델’이 필요하다”며 ‘세계 대학 리더

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지식창조 선도자로서의 도약’, ‘학부교육 내실화를 통한 선한 인재 양성’, ‘대국민 지식나눔 사업’, ‘본권형 운영체계에 입각한 책임행정’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취임사 요지 참조>

權舜赫 前총장은 축사에서 “모교 역사상 최초로 간선제로 선출된 成총장은 앞을 내다보는 ‘비전(Vision)’을 비롯해 ‘도전 정신(Venture)’, ‘생명력(Vitality)’을 뜻하는 3V정신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한 뒤 “3가지 V정신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4번째 V인 ‘승리(Victory)’를 이루게 된다”며 “成총장이 승리가자 돼 모교를 한 단계 더 올려놓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본회 徐廷和회장은 “成총장은 능력 있는 착한 인재 양성, 자율성 확보, 발전기반 조성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며 “총동창회에서 세계의 축이 아시아로 모여드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인 인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염원해왔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인은 국가와 민족, 사회의 미래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수립 후 절대 다수의 지도층으로 국가경영을 책임져왔고 모든 국민이 모교를 희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成총장에게 先見之明이 있는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해 주길 부탁하며 “총동창회는 서울대 2020-20프로젝트와 그 발전기반 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0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임 成총장은 1999년 모교에 부임해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경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모교 제2대 이사장에
본회 朴容喆부회장 선출



모교 이사회는 지난 7월 28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제2대 이사장에 두산연강재단 朴容喆(의약62-68 본회 부회장)이사장(사진)을 선출했다.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재적이사

15명 중 3분의 2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의 찬성으로 정해졌다.

신임 차이사장은 모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된 2011년 말 초

대 이사로 선임된 뒤 지난해 12월 2년 임기의 이사로 연임됐으며, 지난 7월 20일부터 임시 이사장을 맡아왔다.

(香)

<모교 이사 및 감사 현황>

학외이사(8)	羅承日 교육부 차관	方文圭 기획재정부 2차관
	朴容喆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卞大圭 휴맥스홀딩스 대표
	徐之文 고려대 명예교수	宋光洙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安炳禹 前총주대 총장	李榮善 코피온 총재
학내이사(7)	成樂寅 총장	金鍾瑞 교육부총장
	李惠日 연구부총장	朴明圭 사회학과 교수
	朴容喆 산업공학과 교수	李仁源 농생명공학부 교수
	鄭雲燦 경제학부 명예교수	
감사	金鎭海 前감사원 조사국장	尹成福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모교 새 보직교수 임명

金鍾瑞·李愚日·柳根培부총장 등



金鍾瑞교육부총장



李愚日연구부총장



柳根培기획부총장

교무처장	金秉文
교무부처장	白承學
학생처장	金正漢
학생부처장	韓成林
연구처장	朴魯賢
연구부처장	吳貞美
기획처장	李哲洙
기획부처장	姜昌雨
입학본부장	權禎鉉
정보화본부장	申榮吉
정보화부분부장	張正柱
기초교육원장	安秉稷
기초교육부원장	劉載俊

모교(총장 成樂寅)는 지난 7월 23~26일 교육부총장 겸 대학원장에 종교학과 金鍾瑞(종교72-76) 교수, 연구부총장에 기계항공공학부 李愚日(기계공학72-76) 교수, 기획부총장에 지리학과 柳根培(지리73-77) 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금교육부총장은 1993년 모교 종교학과에 교수로 부임해 모교 종교문제연구소장, 중앙도서관장, 출판문화원장, 한국종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李연구부총장은 울산대 교수를 거쳐 1987년 모교에 부임했으며 모교 공과대학 학장, 대한산업기술지원단장, 한국복합재료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柳기획부총장은 1988년 모교 지리학과에 교수로 부임해 모교 국토문제연구소장, 사회과학대학 부학장, 기획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교무처장에는 화학부 金秉文(화학75-80) 교수, 학생처장에 농생명공학부 金正漢(농화학75-79) 교수, 연구처장에 산부인과학교실 朴魯賢(의학78-84) 교수, 기획처장에 법학부 李哲洙(법학78-82) 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또 입학본부장에 독어교육과 權禎鉉(독어교육76-81) 교수, 정보화본부장에 컴퓨터공학부 申榮吉(계산통계78-82) 교수, 기초교육원장에 서양사학과 安秉稷(서양사74-81)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교무부처장 겸 교육부처장에는 치의학과 白承學(치의학84-88) 교수, 학생부처장에 식품영양학과 韓成林(식품영양83-87) 교수, 연구부처장에 약학과 吳貞美(텍사스대졸) 교수, 기획부처장에 독어독문학과 姜昌雨(독문84졸) 교수, 정보화본부장 본부장에 경영학과 張正柱(경영85-89) 교수, 기초교육원 부원장에 물리천문학부 劉載俊(물리80-84) 교수를 선임했다.



金秉文교무처장



金正漢학생처장



朴魯賢연구처장



李哲洙기획처장



權禎鉉입학본부장



申榮吉정보본부장



安秉稷기초교육원장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정학'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모교 국제학과 朴喆熙(정치82-86)·辛旻昊(외교87-91) 교수 등이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국가들의 대미 정책에 관한 주제의 토론을 진행했다.

팟캐스트 통해 건강 정보 제공

모교 병원

모교 병원(원장 吳秉熙)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한 팟캐스트 'SNUH 건강 특독'을 제작해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팟캐스트(pod cast)는 인터넷망

을 통해 뉴스,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SNUH 건강 특독'에서는 2명의 모교 병원 의사가 출연해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건강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현재 ▲비타민은 過猶不及? 多多益善?(朴敏善·曹英珉교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장 잘

은 의사는 따뜻한 보호자(金朋年·金碩柱교수) ▲'대장암' 조기 발견? 대장 내시경이 답이다(趙飛龍·朴智源교수) ▲'대장암' 항문을 살리는 수술법이 무조건 최고는 아니다(趙飛龍·朴智源교수) 편이 각각 업로드됐다.

'SNUH 건강 특독'은 편당 15~20분 분량으로 월 3~4회 업로드 예정이며, 모교 병원 홈페이지는 물론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팟캐스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학생회 '관악타임' 첫 발간

총학생회(회장 李慶桓)는 지난 7월 11일 학생회 활동을 홍보하는 한편 재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잡지 '관악타임'(사진)을 발간했다. 총학생회가 그동안 신문 형태의 소식지를 배포한 적은 있지만 컬러판의 정식 잡지를 발간한 것은 처음이다.

'관악타임'은 모교 재학생들이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은어로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지금의 모습을 꼬집은 것이다.

잡지는 학생공개평가단 모집, 기말고사 간식 사업, 세월호 사건 관련 활동 등 총학생회가 지난 1학기 동안 시행한 주요 활동은 물론 동아리 소개, 학내 휴게실 위치 및 장단점 등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李慶桓회장은 "학생회의 활동 소식을 더욱 대중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실을 수 있는 공론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잡



지 발간이 그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 호는 올해 말 발간 예정이다.

인문대학 학장에 張在盛교수



지난 7월 23일 모교 인문대학 학장에 불어불문학과 張在盛(불문75-82)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張학장은 모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 프랑스 파리 제7대학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수료했다.

지난 1985년 모교에 부임한 이후 모교 인문대학 학생부학장, 대학신문사 주간, 학생처장, 파리 제7대학 외국인 전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프랑스어의 통시적 변화양상연구-라틴어에서 로망어로의 언어변화를 중심으로', '불-한 형용사의 통사·의미 특성 대조연구', '불어형성기의 이중모음화와 단모음화 연구', '불어의 음운론적 지배 양상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장에 李鶴來교수



지난 7월 11일 모교 평창캠퍼스 국제농업기술대학원장에 임산공학과 李鶴來(임산가공75-79)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신임 李원장은 모교 임산가공학과를 졸업한 뒤 대학원에서 임산공학 석사학위,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제지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남대 교수를 거쳐 1993년 모교에 부임한 李원장은 모교 학생처장,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편집위원장 및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펄프종이공학회 명예회장,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등을 맡고 있다. 한국목재공학상 장려상(2000년), 제5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2002년), 인센문화대상 특별상(2010년) 등을 수상했다.

체 게바라 딸 '알레이다 박사' 의대서 특강

모교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李鍾求)는 지난 7월 15일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관에서 쿠바 윌리엄 솔레르 어린이병원의 알레이다 게바라 마치 박사(사진)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알레이다 박사는 쿠바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막내딸이다.

소아과 전문의인 알레이다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쿠바의 1차 의료'를 주제로 현재 쿠바 의료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쿠바는 소득, 거주 지역, 나이 등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지



난 60여 년 동안 유아 사망률이 인구 1천명당 60명에서 4.2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쿠바의 의과대학에서는 환자들을 섬김으로써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의사가 되는 것을 우선으로 교육한다"고 말했다.

'가면의 고백'展

미술관

미술관(관장 金成禧)은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미술관 1~4전시실에서 '가면의 고백' 기획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이 시대의 새로운 고백의 창이 된 SNS를 통한 자기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기획됐으며 자신에 대한 내적 탐색의 의미가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23명의 작가와 40여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난 7월 10일 열린 개막 행사에는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香)

'동북아' 주제 세미나

국제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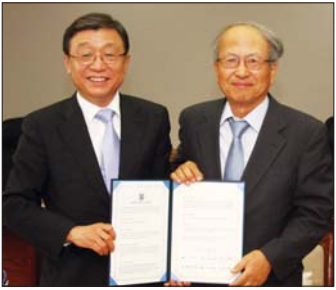
국제대학원(원장 文輝昌)은 지난 7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미국,

權旭鉉 명예교수
공대에 1억원 기부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權旭鉉(전기공학62-66) 명예교수가 지난 6월 17일 모교에 1억원을 기부했다.

모교는 이날 吳然天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南益鉉기획처장, 李在影학생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고 權명예교수가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국내 벤처기업계의 대부로 불리는 權명예교수는 휴맥스 卞大圭(제어계측79-83)대표, 슈프리마



吳然天총장, 權旭鉉 명예교수

李幸源(제어계측87-91)대표 등 다수의 제자를 국내 유수의 벤처기업 CEO로 성장시켰다.

權명예교수는 모교 평의원회 의장과 대한전기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제자동제어연맹(IFAC) 회장으로 재임 당시 개발도상국의 젊은 공학자들을 위해 사채 50만 달러를 출연하는 등 후학 양성에 꾸준히 해왔다.

柳會振 학술정보관 건립 감사 행사

“기일마다 고인 추모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앞줄 좌로부터 金炯周상임이사, 李相求정보화본부장, 공대 李正東부학장, 자연대 金聖根학장, 李俊植연구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吳然天총장, 공대 李建雨학장, 뒷줄 좌로부터 일곱 번째 南益鉉기획처장, 李在影학생처장

모교 발전기금은 지난 7월 2일 모교 공과대학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柳會振 학술정보관 건립 보고 및 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吳然天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南益鉉기획처장, 李在影학생처장 및 발전기금 金炯周상임이사, 李相求정보화본부장, 공과대학 李建雨학장과 교수진, 자연과학대학 金聖根학장과 교수진 등 모교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특별히 故 柳會振(기계설계78-82)동문의 동기인 서울시립대 기계정보공학과 權元台(기계설계78-82)교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吳然天총장의 환영사에 이

어 발전기금 金炯周상임이사가 柳동문의 소개 및 기부금에 관한 경과보고를 했으며, 공과대학 李正東기획부학장이 柳會振 학술정보관 건립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柳동문은 지난 2011년 구강암으로 별세하며 1백억원이 넘는 전재산을 모교에 유증했다. 이러한 공로로 모교는 지난 5월 柳동문에게 발전공로상을 수여했으며, 柳동문의 기금으로 柳會振 학술정보관을 건립해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육·연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발전기금은 유가족이 없는 柳동문을 위해 장례를 엄수하고 매년 기일마다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고교생 대상 대학 체험캠프 개최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학장 金聖根)은 지난 7월 23~25일 모교 관악캠퍼스 자연과학대학에서 청소년과학기술진흥센터(소장 李賢淑)와 공동으로 자연과학 체험캠프를 개최했다.

이는 전국 일반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대학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로설정에 실

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한 자연과학 체험캠프는 화학, 수리·통계, 물리·천문,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5개 분야로 나뉘 각 분야의 전공교수 및 조교들이 직접 실험 실습 지도와 강연을 진행했다.

또 학부 재학생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자세한 대학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秀)

제학생의 소리



모교 아마추어 천문회(A. A. A)는 누구나 한 번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느끼는 낭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단순히 별을 보는 것부터 망원경으로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사진을 통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너무 밝아 별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서울 하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의 A. A. A만의 독자적인 관측시설인 ‘김태영 기념관측소’에서는 아직도 날씨 좋은 날엔 꽤 많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아리 선배님들이 직접 제작하신 대구경 망원경들은 대학교 아마추어 천문동아리 중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더욱 질 높은 관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다 같이 모

‘밤하늘의 별을 보는 동아리’

이는 것은 물론이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일주일에 1~2회 정기적으로 관측소에 모여 천문 관련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하늘로는 성이



차지 않아, 달 없고 아주 맑은 날에는 망원경, 카메라 및 기타 장비들을 싣고 강원도로 밤샘 관측을 떠납니다. 난생처음 보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과 은하수, 별뿔별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A. A. A사람들은 이 소규모 관측회에서 느낀 감동으로 계속 동아리에 남게 됩니다.

동아리 특성상 낮에는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신입생들에게 별자리 및 안시, 사진 관측법을 가르쳐 주는 디딤돌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배님들이 직접 만든 ‘디딤돌’ 교재를 사용해 천체관측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입생들이 관측할

金 倫 湜(물리천문13입)

아마추어 천문회(A. A. A) 회장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관측 활동을 한 결과 물들을 1년에 한 번씩 학교 문화관 전시실에서 천체 사진전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올해도 제32회 천체 사진전을 열 예정입니다. 1980년에 동아리 발족을 해 35년이 지난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A. A. A에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교육부대학특성화사업

6개 사업단 선정!

수도권 공동1위!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모집

가천대학교의 통합이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속도와 파워로
글로벌 명문의 더 큰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닥터헬기

가천관

비전타워

가천하와이교육원

국기재양센터

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

가천대길병원

기업맞춤형
Edu-EcoSystem기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사업단
컴퓨터공학과 / 소프트웨어학과

C³ube 시스템에 의한
바이오융합 인재양성 사업단
바이오헬스학과 / 나노화학 / 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나노물리학과 / 약학과

바람개비
보건과학 사업단
의용생체공학과 /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 운동재활복지학과

통합적 휴먼서비스
인재양성 사업단
유아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 / 사회복지학과

린-스타트업
(Lean-Startup)기반
디자인 특성화 사업단
디자인전공

수학기반 맞춤형
금융미드필드 양성 사업단
금융수학학과
금융통계학과

가천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안내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명	모집인원
학생부우수자	531명	가천의예	15명	어학우수자	47명
학생부적성우수자	1,285명	가천프린티어	489명	실기우수자	120명
농어촌(적성)	59명	사회기여자	98명	특성화고졸재직자	50명
농어촌(종합)	59명	교육기회균형	40명	수시 총 모집인원	2,899명
특성화고교	59명	취업자	47명		

원서접수 : 9.13(토)~9.18(목)

입시문의 : 가천대학교 입학처

[1577-0067]

아름다운 인재의 삶

가천대학교

Paper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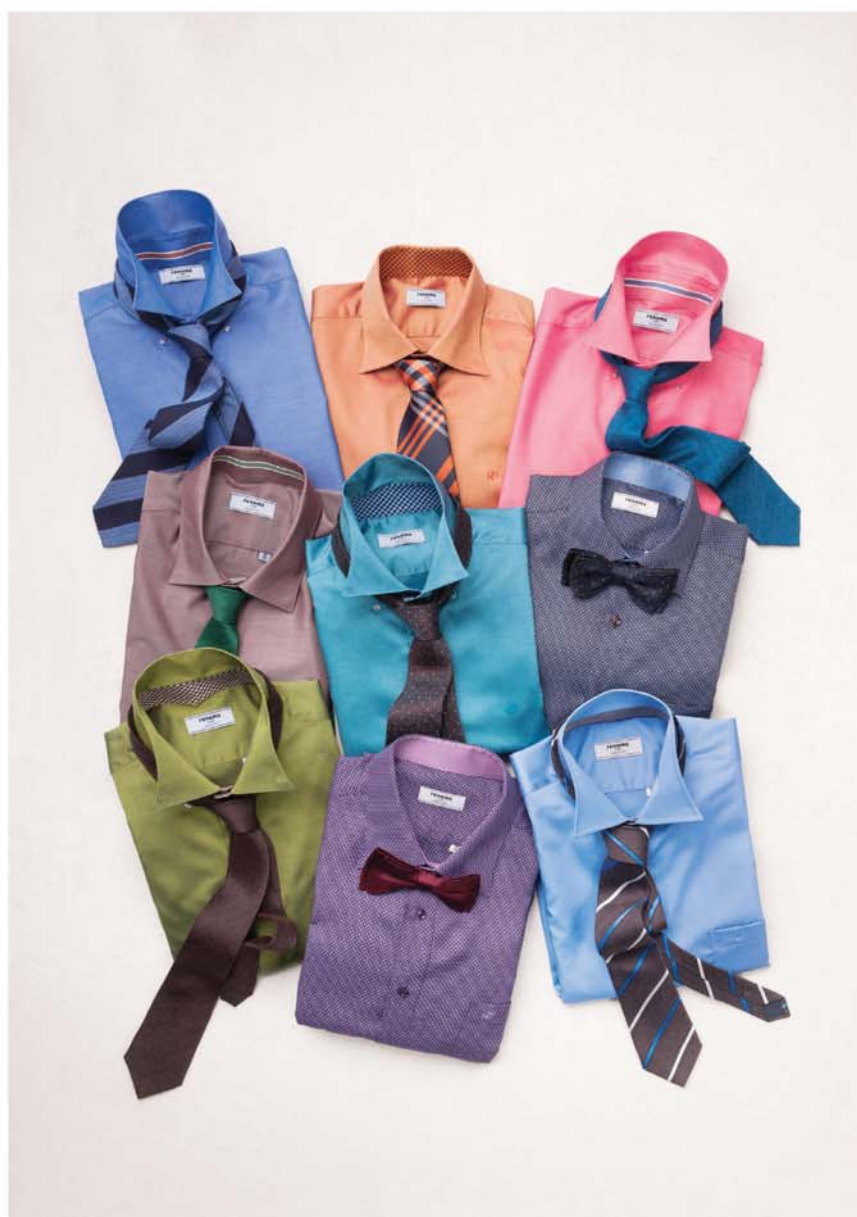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



renoma
PARIS





www.toilet.or.kr



한국화장실협회(KTA)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안전행정부 소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입니다.

- 화장실 이용문화 선진화
- 공중화장실 정책 및 제도 개선
- 화장실관련 산업 발전
- 취약계층 화장실 지어주기 운동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장 김종해



특수 한국화장실협회
법인 Korea Toilet Association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인계동) 기업은행 4층
T 031.226.7001 F 031.226.7045

“세계 최대크기의 변기모양 화장실 전시관 해우재”



posco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해피빌더
라오스에서
행복짓기

땀 흘리고, 같이 웃고 포스코건설에게 행복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젊은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가 흘린 땀은 땀방울에는
행복을 나누는 포스코건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과 학교가 새로 지어질 때마다
따뜻한 포스코건설의 마음도 세계로 퍼져 나갑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세상의 행복, 포스코건설이 짓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 3기 라오스 출범식
행복을 짓는 사람만이 행복한 Happy Builder는 기술 따뜻한 글로벌 리더양성을 목적으로
포스코건설이 만든 대학생 봉사단으로 2011년 1기 출범을 시작으로 국회는 물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해외 곳곳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콩트 릴레이

비바리 사랑

權 武 —(철학64-68)

소설가



세월의 덧없음이며! 내가 서울을 떠나 제주에 정착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늘 그랬듯이 나는 오늘도 바닷가에 앉아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바위에 첩씩이는 파도소리를 듣는다. 나는 물질하는 해녀들을 내려다본다. 대여섯 명의 해녀들이 태약을 안고 물위에 떠 있다가 일제히 몸을 솟구쳐 물속으로 사라진다. 잠시 후 그들은 물위로 얼굴을 내밀고 호이호이 숨비소리를 낸다. 나는 회상에 잠긴다.

나는 반평생을 산업의 역군으로 뛰었다. 당시 우리는 잘살아 보자며 밤을 지새웠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공장에서, 건설의 현장에서 땀을 흘렸고 멀리 중동의 사막에서 모

켜져 보름달이 되고 다시 이지러져 그믐달이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그믐밤의 하늘은 총총한 별들로 메워져 있다. 흐린 날의 밤은 지척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다. 습관처럼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다.

나는 차를 몰고 해안도로를 달리고 산록도로를 넘나든다. 숲길을 걷고 오름을 오른다. 오름 한가운데 파인 분화구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모습이다. 오름에서 너른 평원과 바다를 내려다보지면 호연지기를 느낀다. 오름에 오르면 비탈에 구르고 싶고 저 초원을 향해 날고 싶다. 저 초원에서 뒹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제주는 아름답다. 제주의 하늘은 넓고 크다.

“

그 사내놈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아들은 자기 호적에 올려버린 것이었다.

봉님은 아들이라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늘 허탕만 쳤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여기에 주막집을 연 것이다.

”

래바람을 맞으며 뛰었다. 그러나 막상 정든 직장을 떠나면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신명을 바쳐 일한 역할이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했고 그 중 하나의 톱니바퀴가 빠져도 기계는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고 할 줄 아는 일도 없었다. 나는 나처럼 은퇴한 벼들과 낮에는 낚시 먹고 밤에는 밤술 먹으며 몇 달을 할 일 없이 지냈다. 그러다 문득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나는 연고도 없고 아는 이도 없는 제주로 향했다. 제주도 최남단의 어촌마을에 10평 정도 되는 허름한 무허가 주택을 겨저 빌렸다. 이 마을은 약 20호의 시골스런 집들이 웅기쫘기 모여 있고 마을 앞에는 용도 폐기된 해수욕장이 있다. 바다 건너에 가파도가 턱에 닿고 마라도가 파도에 넘실거린다. 주민들은 대개가 앞바다에 나가 물질해 생계를 꾸려가며 몇 폐기의 밭을 가는 집들도 있다. 바닷가에 산뜻한 주막집이 하나 있는데 ‘비바리의 집’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나는 희薄的한 새벽이면 바닷가로 나간다. 해안을 따라 걷기도 하고 이슬에 발목을 적시며 발목을 걷기도 한다. 밤에는 바닷가를 걷는다. 매일 밤 걷다 보니 초승달이 나날이

혼자 지내는 밤은 길고 지루하다. 가족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 눈물나는 밤, 나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불이 켜져 있는 ‘비바리의 집’을 찾았다. 손님이 다 떠난 늦은 밤 중년의 곰상한 여인이 밤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선다.

“장사 끝났수다.”

여인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시선을 검은 바다에 고정시킨 채 통명스럽게 말한다. 나를 경계하는 눈치다.

“저녁을 안 먹어서...”

“문 닫았수다.”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다. 쓸쓸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양(여보세요)! ”

그 여인이 부른다. 나는 되짚어갔다.

“팔다 남은 삶은 문어가 좀 있수다. 돈은 안 받을 테니 몇 점 드시구려.”

나는 막걸리를 곁들여 약간 굳은 문어살을 씹고 있었다. 그 여인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먼저 말을 걸었다.

“우리 해녀들은 선생님이 육지에서 와서 혼자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요. 무사(왜) 왔수까?”

그렇다. 그녀를 포함해서 이 동네 해녀들은 물질을 하는 중에도 외기러기처럼 바닷가에 외로이 앉아있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별로 할 말도 없고 초면의 여인에게 말을 걸기도 뭐해서 막걸리 한 병을 비우고 일어섰다.

돌아서는 내게 그 여인이 수줍은 듯 말했다.

“뗏거리 거르지 말고 아무 때나 오시구려. 문이 열려 있으면...”

자주는 아니지만 나는 저녁 나절에 바닷가를 걷다가 출출하면 그 집을 찾아들곤 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나 하나 달랑 있을 때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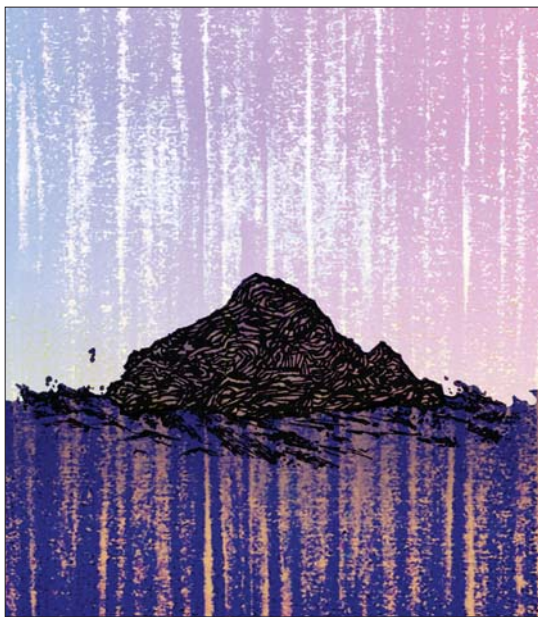
그 여인은 봉님이라 했고 낮에는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여 전복, 소라, 문어를 잡고 이걸 주막에 가져와 안줏거리로 술장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손님은 주로 읍내 사람들로 한 때가 와서 왁자지껄 떠들다가 썰물처럼 사라지곤 한다고 한다.

“가죽은요?”

“어수다(없습디다).”

“없다니요?”

봉님은 여기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고 흠어머니를 모시고 물질을 하며 살았다고 한다. 차마 흠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녀는 서른이 넘도록 결혼을 마다했다. 그녀는 물질 실력이 뛰어나서 손바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 (디자인09-13)

닥만 한 전복을 잘도 따곤 했다. 그녀의 전복을 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건설업을 하는 육지 사람이었다. 뺨질나게 찾아오는 그 사내와 봉님은 정분이 나 마을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제주시의 오피스텔에 살림을 차렸고 아들 하나를 뒀다. 남편은 사업상이라며 1년에 반이상은 육지로 올라가 살았다. 하나뿐인 아들이 네 살 때의 일이다. 육지에 갔던 남편

이 문을 열고 들어오

는 순간 살집이 좋은 어떤 여인이 뒤따라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봉님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본처였다. 봉님은 아들도 빼앗긴 채 영문도 모르고 쫓겨났다.

봉님은 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그녀가 살던 집 마당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호적정리라도 해야겠다고 읍사무소에 찾아가 봉님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녀는 결혼한 적이 없었다. 그 사내놈이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아들은 자기 호적에 올려버린 것이었다. 봉님은 아들이라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으나 늘 허탕만 쳤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여기에 주막집을 연 것이다. 아들과 생이별한 지 5년이 지났으니 지금쯤은 초등학교에 다닐 것이다.

“그래서 다시 비바리로 돌아왔지요. 바다가 나를 불렀나 봐요. 피하러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비바리의 숙명이지요.”

그녀는 답답해 했다.

외로운 나는 밤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비바리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곤 했다. 나와 무척 가까워진 봉님은 작살을 쏘아 갯돔이나 다금바리를 잡아 올리면 몰래 감춰뒀

다가 내가 나타나면 등성등성 썰어서 내왔다. 내가 얼큰히 취하면 그녀는 설거지를 끝내고 바닷가로 나를 끌어낸다. 우리는 밤바다를 느끼며 걸었고 바위에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노래에는 애절한 사연이 묻어 있다. 내 어깨에 기대어 앉아있는 그녀에게 내가 입맞춤을 할라치면 그녀는 살며시 일어나 저만치 사라진다.

이때 후 나는 바닷가 마을에서 중산간의 농촌마을로 이사를 했다. 굴 과수원을 깬 아담한 집이었다. 경험은 없지만 굴 농사일을 생각이었다. 그 즈음 나는 소설을 쓰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나는 제주사람들을 소재로, 그들이 살아왔던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뜸하기는 하지만 나는 한 마장 정도 되는 밤길을 걸어 비바리의 집을 찾곤 했다. 우리 사이가 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만나는 순간 일사안고 좋아했다. 우리는 밤의 바닷가를 걷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이깟 장사를 때려치우고 아들을 찾아 나서겠다고 매번 다짐을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지는 못했다.

2012년 8월 태풍 블라벤이 제주를 덮쳤다. 거친 바람이 굴가지를 흔들며대고 있었다. 나는 움썽달싹하지 않고 방안에 엎드려 있었다. 썩아 하는 바람소리, 바람이 들판을 때리며 내는 귀곡성, 창문이 덜컹거리고 대문이 삐걱거린다. 집 앞의 커다란 팽나무 가지가 반쯤 꺾여 춤을 춘다. 저 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 집 지붕을 덮칠 것 같아 나는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한밤중인데 전기조차 나가고 암흑 속이다.

광광광!

대문이 심하게 요동치는 소리가 났다. 이리다가 대문이 통째로 넘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됐지만 어찌 해볼 엄두를 낼 수가 없다. 소리는 더욱 요란하다. 문득 비명 같은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 나는 허겁지겁 달려나갔다.

봉님이가 비를 훌쩍 맞은 채 서 있다. 머리는 산발로 나부끼고 옷은 찢어져 나뒹댄다. 그녀를 감싸안고 들어왔다. 그녀는 덜덜덜 떨고 있었다.

“가게가 때려려졌어요. 집도 무너져 내리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내 시선은 아랑곳 않고 옷을 훌훌 벗어 던졌다. 어차피 암흑 속이라 볼 수도 없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 나는 장롱에서 내 겨울옷을 꺼내 욕실에 밀어 넣었다. 젖은 옷은 식탁 의자에 널었다. 나는 촛불을 켜다. 그녀는 아직도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녀를 내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를 내 체온으로 녹여주고 있었다. 나는 한참이나 그녀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물질 모르는 내 몸이 뜨거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얼굴을 숨기느라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다음날 아침 거짓말같이 동창에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곤히 자고 있을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바닷가로 달려갔다. 주막집은 흔적조차 없었다. 다만 ‘비바리의 집’ 현판이 모래 속에 파묻혀 반쯤 드러나 있었다.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지붕은 날아가 뒤꼍 돌담에 걸려 있고 집은 폭삭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 집 저 집 기웃거렸다.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을사람들이 모래사장으로 우르르 달려가고 있었다. 간밤에 풍랑으로 떠밀려온 물고기와 해초를 거두기 위함이라라.

동 정

수 상

▲鄭鎮宇(의학45-49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오는 9월 5일 제 59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음악 부문) 수상.

▲朴成勳(기계공학58-63 모교 사장·본회 부회장)=지난 7월 1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 수상.

▲李景植(역사교육65-69 모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오는 9월 17일 제59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인문학 부문) 수상.

▲曹南鉉(국문66-70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오는 9월 17일 제59회 대한민국학술원상(인문학 부문) 수상.

▲丁世鉉(외교67-71 前통일부장관·원광대 총장)=최근 한겨레통일문화재단으로부터 제16회 한겨레통일문화상 수상.

▲權五鉉(전기공학71-75 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安圭里(의학74-80 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지난 7월 26~3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이식학회에서 제1회 '소리 없는 영웅상(Unsung Hero Award)' 수상.

▲吳泰植(기계공학75-79 방위사업청 사업관리 본부장)=지난 6월 30일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으로부터 한미안보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The William McEntire Dye Memorial Award 수상.

▲河英源(법학79졸 서강대 교수)=지난 7월 14일 제32회 鄭進基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경제경영도서 부문 우수상 수상. 또 16일 한국소비자학회로부터 대한민국 경영대상 학술공헌상 수상.

▲崔泰洪(약학80졸 보령제약 사장)=지난 7월 14일 제32회 鄭進基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연구 부문 우수상 수상.

▲李信斗(물리76-80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오는 9월 17일 제59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응용 부문) 수상.

▲李洪明(물리77-81 고등과학원 교수)=지난 7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朴炳旭(계산통계78-82 모교 통계학과 교수)=오는 9월 17일 제 59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 부문) 수상.

▲姜秉南(물리79-83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오는 9월 17일 제59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기초 부문) 수상.

▲余禎星(가정관리79-83 모교 생활과학대학 학장)=지난 7월 16일 한국소비자학회로부터 2014 대한민국 경영대상 학술공헌상 수상.

▲申勁植(사법82-86 수원지방법장청 검사장)=최근 제5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황조근정훈장 수훈.

▲李京默(경영82-86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7월 14일 제32회 鄭進基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경제경영도서 부문 대상 수상.

▲宋在鎔(경영83-87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7월 14일 제32회 鄭進基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경제경영도서 부문 대상 수상.

▲노관범(국사89-96 한림대 연구교수)=최근 재단법인 실시학사로부터 제4회 모하심학 논문상 수상.

▲田炳坤(전기공학90-94 모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7월 14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올해의 MS학술상 수상.

▲權聖根(의학90-96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최근 미국 이비인후과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에서 'Best poster award 2nd place' 수상.

▲沈相昨(AMP 55기 대우토건 대표)=최근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 수훈.

▲趙鏞炳(AMP 70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최근 제2회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대상(사회공헌 부문) 수상.

▲朴基錫(AIP 27기 시공테크 회장)=최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鄭熙仙(ACAD 58기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 원장)=지난 7월 9일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 수훈.

▲朴鍾雄(ACPM 10기 삼일기업공사 대표)=최근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河成敗(AFP 4기 SK텔레콤 사장)=지난 7월 14일 제32회 鄭進基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연구 부문 대상 수상.

인 사

▲宋熙星(물리56-60 모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

▲柳興朱(법학58-65 前국회의원·한일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지난 7월 22일 주일 대사에 내정.

▲李廷玟(영문59-63 모교 언어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鄭鍾旭(외교59-65 前駐중국대사·인천대 석좌교수)=지난 7월 1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에 임명.

▲金城吉(성악61-65 모교 성악과 명예교수)=지난 7월 3일 대한민국예술원 음악분과 회원에 선출.

▲張丞弼(토목공학61-65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오는 9월 3~5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교량 및 건축구조학회(IABSE) 총회에서 국내 최초로

화제의
신간
7월 발간

우리 생활과 안전을 위한
ASTM
ASTM: For our Daily Life and Safety

안전

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지금,
ASTM이 안전한 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노아의 방주로부터 산업혁명, 세계 2차 대전, 반도체 생산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겨온 ASTM과 표준규격의 역사와,

각종 유아용 제품 안전, 원유 유출 사고 대응, 3D 프린팅, 놀이시설 안전관리, 도심 재난상황 대응 방안 표준 등 우리 주변의 생생한 ASTM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KITIS 산학연정보(주) 부설 기술연구소 지음 | 국판 201쪽 | 값 12,000원

“한국에서 ASTM에 대한 책이 발행되는 것을 축하 드립니다.
이 책은 ASTM International에서 인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쉽게 ASTM 규격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ASTM International 부사장 John Pace

YES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올컬러 eBook 버전을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점 사이트에서 “ASTM”을 검색해보세요.

Authorized Dealer in Korea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명예회원에 추대.

▲李長茂(기계공학63-67 前모교 총장·기계항공 공학부 명예교수·KAIST 이사장)=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



▲李漢龜(철학64-68 성균관대 명예교수·경희대 석좌교수)=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尹美容(국악65-69 前국악방송 이사장)=지난 7월 3일 대한민국예술포럼 음악분과 회원에 선출.



▲黃祐呂(법학65-69 前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국회의원)=지난 8월 8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취임.



▲李錦仁(응용화학66-70 모교 화학 생물공학부 명예교수·전주대 총장)=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에 선출.



▲李丙琪(외교66-71 前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前駐일본 대사)=지난 7월 15일 국가정보원장에 임명.



▲李之舜(상학68-72 모교 경제학부 교수)=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崔鍾燦(무역68-72 前건설교통부 장관·본회 부회장)=지난 7월 1일 국가경영 전략연구원(NSI) 제8대 원장에 취임.



▲洪錫炫(전자공학68-72 중앙일보·JTBC 회장·본회 부회장)=지난 7월 5일 임기 2년의 국제바둑연맹(IGF) 제11대 회장에 선임.



▲李世震(행정68-73 신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원)=지난 7월 1일 임기 2년의 공공정책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7월 2일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고문에 위촉.



▲金錫俊(토목공학69-73 前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모교 기독교동문회장)=지난 6월 20일 안양대 제7대 총장에 취임.



▲鄭鎮可(동물69-7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李秉基(전자공학70-74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지난 7월 11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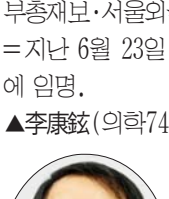
▲玄錫錫(경영70-74 前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근 국립외교원 석좌교수에 위촉.



▲鞠 樑(물리71-75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최근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에 선임.



▲崔陽熙(전자공학71-75 모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7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임명.



▲朴贊郁(정치72-76 모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지난 7월 19~24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제23차 대회에서 집행위원에 선출.



▲張炳和(경제73-77 前한국은행 부총재보·서울외국환중개 사장)=지난 6월 23일 한국은행 부총재에 임명.



▲李康鉉(의학74-80 국립암센터 이형성임상제2연구부장)=지난 7월 17일 국립암센터 원장에 임명.



▲禹基鍾(경영75-79 前기획재정부 녹색성장기획단장·前통계청장)=지난 8월 1일 전라남도 정부부처에 취임.



▲趙兌烈(법학75-79 외교부 제2차관)=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북극 관련 글로벌 의제 협의회(북극 협의회) 위원에 위촉.



▲姜榮哲(경제76-80 풀무원 미국 부문 사장 겸 전략경영원장)=지난 7월 16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에 임명.



▲李容秀(체육교육77-81 세종대 교수·대한축구협회 미래전략기획단장)=지난 7월 24일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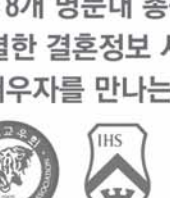
▲鄭宗燮(법학77-81 모교 법학부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지난 7월 16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임명.



▲金濟植(법학77-82 변호사)=지난 7월 30일 상반기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에 당선.



▲文在燾(경제78-82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지난 7월 25일 산업통상자



원부 제2차관에 임명.

▲李錫駿(경제78-82 前기획재정부 예산실장·제2차관)=지난 7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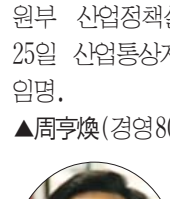
▲李仁雨(치의학78-85 웨스트우드치과의원장)=최근 국내 처음으로 미국 구강치과임플란트위원회(ABOI/ID) 전문의(Diplomate)에 임명.



▲金弘善(전자공학83졸 前안랩 대표)=지난 7월 14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ISO) 부행장에 선임.



▲鄭鎮澈(행정79-85 前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국장·대전복지재단 대표)=지난 7월 15일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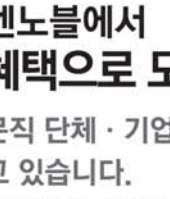
▲李官燮(경영80-8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지난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에 임명.



▲周亨煥(경영80-84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임명.



▲李伯圭(국제경제80-86 前머니투데이 편집국장·부사장)=지난 6월 23일 머니투데이 사장(편집인)에 선임.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특별한 VVIP를 위한 No.1 노블 결혼정보, 엔노블에서
서울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엔노블은 국내 최고의 8개 명문대 총동창회, 22개 전문직 단체·기업과 협력하여
5천명의 회원에게 특별한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곳, 바로 엔/노/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李基權(행대원81-83 前고용노동부 차관·한국기술교육대 총장)=지난 7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



▲高英先(경제81-8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지난 7월 25일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

▲方文圭(영문81-85 前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예산실장)=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임명.



▲林煥守(정치81-85 前국세청 법인납세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지난 7월 25일 국세청장에 내정.



▲羅卿媛(사법82-86 前국회의원)=지난 7월 30일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서울 동작구을) 국회의원에 당선.



▲金熙范(행대원82-87 前駐캐나다 문화홍보원장·駐에티오피아 총영사)=지난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임명.

▲丁效聲(행대원82-89 前서울시 행정국장·기획조정실장)=지난 7월 15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임명.



▲金尙圭(행대원83-85 前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지난 7월 25일 조달청장에 임명.

▲千榮植(서양사학84-90 문화일보 전국부장)=지난 7월 17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실 홍보기획비서관에 임명.

▲權石泉(사법85-89 중앙일보 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7월 7일 중앙일보 편집·뉴미디어국 사회2부장에 선임.



▲權容賢(행대원86-95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지난 7월 25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임명.

▲金勇男(사법88-93 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지난 7월 30일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경기 수원시병) 국회의원에 당선.



▲朴舜浩(AMP 43기 세정그룹 회장·대한요트협회장)=지난 7월 15일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한국선수단 단장에 선임.



▲金樂會(SPARC 20기 前조세심판원장·기획재정부 세제실장)=지난 7월 25일 관세청장에 임명.



▶ 행사

▲吳桂淑(응용미술59-63 섬유설치미술가)=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서울 우이동 박을북 지수박물관에서 '섬유미



술 5인 시선전(가제)' 개최.

▲李富榮(정치61-69 夢陽 呂運亨 선생기념사업회장)=지난 7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회 夢陽 학술심포지엄 개최. 또 19일 서울 우이동 묘역에서 呂運亨선생 제67주기 추모식 개최.



▲車興奉(사회62-69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지난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1회 복지사회정책포럼 개최.



▲朴容相(법학63-67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지난 7월 22일 대전지역 주요 언론사 대표와 간담회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7월 31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환경법제 동향과 최근 환경보호법의 개정'을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玉東錫(경제76-80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지난 7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 개최.



▲李珉柱(회화76-80 한국·인도 현대작가교류회장)=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관훈동 스페이스 이노에서 제47



회 개인전 개최.

▲金善姬(기악77-81 충남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오는 8월 19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발디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白淳根(교육80-84 한국교육개발원장)=지난 7월 8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북한의 사회문화 변화와 남북한 교육 통합'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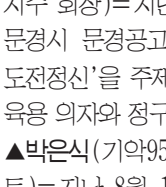


▲李正男(의학80-88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장)=지난 7월 21일 인천시 구월동 가천대 길병원에서 국가 지정 권역외상센터 개소식 개최.



▲任鍾龍(행대원82-84 농협금융지주 회장)=지난 7월 21일 경북 문경시 문경공고를 방문해 '꿈과 도전정신'을 주제로 특강한 후 교육용 의자와 정구 운동용품 전달.

▲박은식(기악95-00 피아니스트)=지난 8월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바흐,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으로



■ 참가 명부를 봅니다 ■

- ▲金宗西(교육46-49 모교 명예교수)=7월 2일 별세(92세)
- ▲李相敦(의학47-53 前중앙대 의무부총장)=7월 3일 별세(84세)
- ▲朴政胤(화학54-58 前한양대 교수·피아니스트)=8월 3일 별세(80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귀국 피아노 독주회 개최.

▲姜旼磬(기악97-01 피아니스트)=오는 8월 23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첼리스트 金信愛(기악05-09)동문 등과 함께 앙상블 에스쁘아 정기연주회 개최.



▲김세희(기악98-02 첼리스트)=오는 8월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슈만, 쇼팽 등의 작품으로 귀국 첼로 독주회 개최.



▲최선희(기악98-02 비올리스트)=지난 8월 1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첼리스트 김정은(기악00-04) 동문 등과 함께 보틀리스 파르티트 정기연주회 개최.



▲趙英丹(생명과학00-04 모교 치과병원 전공의)=지난 6월 29일부터 7월 4일까지 독일 린다우에서 열린 제 64회 노벨상 수상자 회의에 국내 젊은 과학자 대표로 참석.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왜 모두들 1위라고 말할까?
1위처럼 보여야 당신이 신뢰하니까.
누구나 1위에 가입하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이미 당신은 알고 있다.
1위는 원래 하나뿐이란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보자.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결혼해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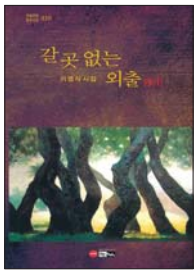
• 국내지사 서울/수원/인천/천안/대전/전주/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 • 해외지사 뉴욕/LA/뉴질랜드

메 듀오 1577-8333

신 간

■ 갈 곳 없는 외출

— 李榮植 지음



올해 ‘문학 미디어’ 봄호에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李榮植 (언어 51-55 前목포대 교수) 동문의 첫 번째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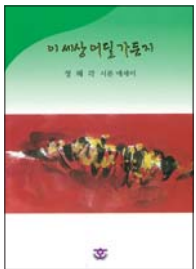
이 시집에는 최근 창작시 1백10편, 1950년대 습작기에 발표한 11편, 미국에 거주하는 친지들을 위해 영어로 쓴 시 13편 등 모두 1백34편이 수록돼 있다.

대체로 청·장년 세대와 중견들의 시편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지혜와 달관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책의 표지그림은 동갑내기 아내 임성순 화가의 작품이다. (한림刊·값15,000원)

■ 이 세상 어딜 가든지

— 丁海楠 지음



흔 맥 문학 동인회 회원인 丁海楠 (농경제 55-61) 동문의 시론 에세이. 일제강점기에 유·소년기를 보내고, 해방과 더불어 혼란과 무질서, 동족상잔인 6·25전쟁과 5·16군사정변을 청소년기에 겪은 丁동문이 격변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골라서 글로 남겼다.

丁동문은 표제작 ‘이 세상 어딜 가든지’에서 “현재는 비록 짧은 찰나의 한 삶의 흐름에 지나지 않지만 이 확실한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한다. (한림刊·값15,000원)

■ 대망의 민족통일

도적같이 오리니

— 柳錫烈 지음



모퉁이돌 선교회 柳錫烈 (사회교육 58-62) 이사장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한 권에 담았다.

이 책은 7부로 나눠 한반도의 통일 준비, 동북아 정세와 전망, 북한의 대남 전략, 그루터기 신앙과 북한선교 등을 심층 분석했다. 柳이사장은 “우리는 북한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고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문광서원刊·값12,000원)

■ 개화기의 외국어교육

— 李光淑 지음



모교 독어교육과 李光淑 (독어교육 66-70) 명예교수가 이 책에서 개화기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외국어교육의 기원과 흐름을 밝히고, 당대의 외국어교육의 목표, 수업연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이 현재의 외국어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소개했다.

이제까지 개화기의 외국어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제나 규정이 많이 논의됐으나 실제로 시행된 교육내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었다. 李 명예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저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작업에 착수해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의 근원을 밝혀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26,000원)

■ 대학이 희망이다

— 吳然天 지음



모교 제25대 총장을 지낸 행정대학원 吳然天 (정치 70-74) 교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범하고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다.

개인의 여정과 함께 지난 4년간 모교 총장으로서 감당했던 일들에 대한 담담한 소회들을 이야기했으며, 연설문을 통해 인간 吳然天의 가치관과 철학을 소개하기도 하며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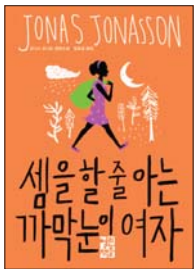
吳교수는 “우리는 현재 가치관의 혼돈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공동체의 구심력을 잃어 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미래와 화합을 위해 대학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15,000원)

■ 썸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 任浩慶 옮김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任浩慶 (불어교육 79-83) 동문이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저자 요나스 요나손의 두 번째 소설 ‘썸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이 여자’



를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스웨덴과 남아공을 배경으로 100세 노인의 삶보다 더 기구하고 황당무계한 까막눈 소녀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역사적 사건들을 차용해 저자 특유의 재치와 유머를 담아 사회 현실을 풍자한다. 비천한 태생이지만 두뇌만은 비범했던 한 여인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종횡무진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열린책들刊·값14,800원)

■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 崔元碩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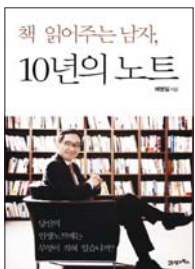


경산대 崔元碩 (지리 82-89) 교수는 모교에서 지리학을 전공하면서 한국 풍수의 대가 崔昌祚 (지리 69-73) 교수에게서 풍수를 배웠다. 그러면서도 산에 마음을 빼앗겨 석사 때부터 산을 연구하는 독특한 행보를 걸어왔다. 그는 스스로를 ‘山家’로 지칭하는 산 연구자다.

이 책은 산을 인문학의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탐구한 국내 최초의 기념비적인 성과다. 산에만 빠져 살아온 학자의 오랜 산 공부의 여정을 집대성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崔교수는 ‘산의 전통지리학’인 풍수와 근대적인 학문인 지리학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한민족과 산의 오랜 관계를 밝혀냈다. 한국의 산은 사람과 산이 함께 어우러진 ‘사람의 산’이라는 것이다. (한길사刊·값20,000원)

■ 책 읽어주는 남자, 10년의 노트

— 芮秉一 지음



플루토미디어 芮秉一 (정치 84-88) 대표가 ‘하루 5분, 경제와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취지에 공감한 회원들에게 2004년에 이메일로 보냈던 ‘예병일의 경제노트’ 2천여 편의 글 중에서 인생과 나를 돌아보게끔 해주는 1백12편의 글을 뽑아 엮은 책.

저자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삶의 모습을 꿈, 고난, 오늘, 이별, 습관, 지속, 좋은 삶, 행복, 고전, 진정한 나, 길 위에서 등 11

공연

■ 소누스 트리오 정기연주회

— 8월 23일 예술의 전당



이틀홀에서 소누스 트리오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4년 서울예고, 모교 출신 동문으로 결성된 Sonus Trio는 이날 베토벤, 차이콥스키 작품을 연연한다. (공연문의: 예연 3436-5929)

■ 차민정 비올라 독주회

— 8월 24일 예술의 전당



비올리스트 차민정 (기악 01-05) 동문 (사진)이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비올라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예일대에서 석사학위, 뉴저지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차 동문은 이날 베버, 힌데미트, 브리튼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연예술기획 586-0945)

■ 선정원 피아노 독주회

— 8월 27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선정원 (기악 95-99) 동문 (사진)이 8월 27일 오



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미국 피바디음대에서 석사학위, 보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선 동문은 현재 숙명여대, 단국대, 중앙대, 상명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이날 하이든, 모차르트, 쇼팽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연예술기획 586-0945)

■ 왕혜인 피아노 독주회

— 8월 27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왕혜인 (기악 01-05) 동문 (사진)이 8월 27일 오후 8시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왕 동문은 이날 슈만, 쇼팽, 하이든, 드뷔시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예연예술기획 586-0945)

■ 임지희 바이올린독주회

— 8월 28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 (기악 00-04) 동문 (사진)이 8월 28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이스턴 음대에서 석사학위, 뉴저지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임 동문은 이날 베토벤, 차이콥스키, 슈트라우스 등의 작품을 선사한다. (공연문의: 예연예술기획 586-0945)

개의 범주로 나누고 저자가 읽은 책 속에서 씨앗을 꺼내 발아시킨 생각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21세기북스刊·값14,000원)

■ 김익수 교수의

내가 사랑한 우리 물고기

— 金益秀 지음



어류학자 전북대 金益秀 (생물교육 60-64) 명예교수가 40년간의 연구 기록을 바탕으로 놀랍고 흥

미로운 우리 물고기 이야기를 담은 책.

한반도의 다채로운 환경에 적응해 저마다의 지혜를 발휘하며 사는 물고기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책은 아름다운 우리 물고기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위기에 처한 고유종 물고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함께 제시한다.

金교수는 한국인 최초로 새로운 물고기종을 발견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학명을 붙였다. 金교수가 발견한 참종개의 학명은 ‘익수키미아 코리엔시스 (Iksookimia korensis)’이다. (다른세상刊·값14,800원)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제약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가 기다리던 슈퍼항생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성공적 완료

이 작은 나라에는 세계가 열광하는 음악이 있고 세계의 기준이 된 기술이 있고 세계가 사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아직 없기에 동아제약이 새롭게 도전합니다 세계가 기다리던 슈퍼항생제 개발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술력을 더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 전문의약품 부문 동아ST와 일반의약품 부문 동아제약을 분리, 동아쏘시오의 이름아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80년 성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를 향하여!
이제 우리의 시장은 세계입니다



동아쏘시오그룹



www.kepital.com

생활속의 플라스틱~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만들어 갑니다.

고객의 요구,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으로
혁신을 추구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뢰받는 기업을 지향하겠습니다!
환경 안전에 기초한
녹색 화학을 실천하겠습니다!

for a better future
KEP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KOREA ENGINEERING PLASTICS CO.,LTD.

마케팅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효성빌딩
Tel. 02-707-6831~6 Fax. 02-714-9235
연구소 : 경기도 군포시 고신로 116, 104동 201호(당정동, SK벤티움)
Tel. 031-436-1300 Fax. 031-436-1301

www.acelaw.co.kr

부동산 · 건설(부동산개발 / 자산운용 / 재개발 · 재건축 / 건설클레임) · 법인회생 · 형사사건

법무법인(유) **에이스**

변호사 **최 거 훈**

Mobile : 010-3877-0702
E-mail : geohc@hanmail.net

미래를 개척해 가는 의지를 가진 변호사들이 만든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법무법인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6-6 송원빌딩 2층
Tel : 02-3487-5000(代) / 02-555-9460(直) Fax : 02-3487-6848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 회비 : 2014년 6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4. 4. 18~7. 16) · 일반 (2014. 4. 18~7. 16)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成百詮= 1백만원
△부회장 郭永駢= 1백만원
△부회장 金贊淑= 1백만원
△부회장 李埈鎔= 1백만원
△부회장 洪性大= 1백만원
△부회장 朴成勳= 1백만원
△부회장 玄明官= 1백만원
△부회장 金永弼= 1백만원
△부회장 劉常夫= 1백만원
△부회장 黃彩皓= 1백만원
△부회장 金慶漢= 1백만원
△부회장 朴容曄= 1백만원
△부회장 金一燮= 1백만원
△부회장 金鐘燮= 1백만원
△부회장 張重桓= 1백만원
△부회장 柳 津= 1백만원
△부회장 鄭八道= 1백만원

관 악 회

△이사 安聖哲= 30만원
△이사 鄭啓泳= 30만원
△이사 金秉順= 30만원

상임이사

△梁光姬 간호대동창회장= 20만원
△崔永喆 문리대동창회장= 20만원
△劉仁洙 미대동창회장= 20만원
△李揆澤 사대동창회장= 20만원
△李慶秀 약대동창회장= 20만원
△申秀奭 음대동창회장= 20만원
△金基炳 행대원동창회장= 20만원
△李弼雨 ACAD동창회장= 20만원
△朴浩永 HPM동창회장= 20만원
△文正旭 AFB동창회장= 20만원
△趙鐸根 GLP동창회장= 20만원
△全益寬 ABKI동창회장= 20만원
△崔炳五 AWASB동창회장= 5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근수 치대63
△강기창 사대73 △경경환 공대72
△권동일 공대75 △권성우 사회87
△금방용 농대85 △김동현 사대76
△김두상 의대89 △김미근 GLP23
△김연철 공대67 △김영규 자연79
△김영민 공대73 △김윤세 ACAD50
△김자영 간호93 △김재요 공대94
△김종현 법대89 △김창기 의대89
△김정자 SPAR13 △김한기 BCP3
△김한호 GLP8 △동용국 保院92
△류래경 AMP69 △모인필 수의74
△박경호 공대73 △박대호 APC4
△박만순 문리69 △박순환 AIP46
△박승국 치대92 △박일동 AMP66
△박재찬 문리71 △박정규 ACPM10
△서정식 HPM27 △석희철 ACPM4

△손필상 농대77 △송혜영 법대86
△신상길 AMP18 △심재진 공대76
△안성일 법대78 △안태환 공대75
△엄필현 공대78 △여운걸 의대96
△염경산 AMFR5 △오영철 공대88
△유병도 치대56 △윤덕원 공대83
△윤미량 行院88 △이강은 농대81
△이경목 경영82 △이기향 미대75
△이명식 의대75 △이상윤 경영93
△이상훈 법대81 △이석종 법대84
△이성균 AMP51 △이영일 약대92
△이영환 SPAR19 △이용재 AMPP13
△이장무 공대63 △이재경 인문75
△이종석 음대72 △이종필 인문88
△이준선 사대69 △이지호 의대77
△이창훈 공대94 △이호창 의대95
△이희운 약대67 △임윤수 법대89
△전중규 AMP73 △정영만 ACAD71
△정영화 의대75 △정해연 GLP17
△정효재 법대82 △조병철 AIC19
△조연신 음대89 △조재건 법대82
△조정근 법대77 △조혁증 사대78
△주관옥 의대86 △주정훈 공대81
△최무혁 공대67 △최영만 ABKI3
△최영춘 AIC35 △한경국 법대57
△한동수 ACAD73 △허노정 치대67
△홍석근 의대80 △홍순우 의대85
△황성진 법대66 △황순정 치대81

〈일반〉 △강성철 사대71
△강태승 인문05 △고수영 음대95
△김덕립 AMP76 △김동수 공대68
△김명국 의대06 △김무진 의대75
△김법진 인문95 △김상진 약대85
△김용식 의대71 △김유순 AFB9
△김유채 공대63 △김이구 인문78
△김재성 AMP76 △김창균 공대96
△김현중 AMPP14 △박두홍 공대75
△박상민 미대61 △박인식 공대76
△서성수 약대66 △서관길 수의73
△석승훈 경영82 △성민석 공대04
△손품삼 ACAD21 △송우현 경영99
△심범섭 AMP76 △심인환 공대92
△양재호 법대94 △오영희 사대74
△오창훈 공대86 △유석진 사회83
△유진수 농대93 △이건영 HPM30
△이광재 ALP16 △이문종 농대73
△이승원 사대84 △이용덕 사대71
△이창식 자연81 △임순자 미대69
△장인철 치대73 △조성현 간호89
△조진래 공대74 △주용접 음대67
△최덕신 의대93 △최상철 ACAD36
△최재영 GLP19 △황구연 AIP38

이 사

◆인문대 △강현주93 △고재학82
△김광현76 △김정호90 △김정환81
△김주현90 △김태현75 △류은숙04
△문선호87 △박진우93 △박태영74
△박해진81 △박희일91 △방한빈77

△변성수84 △서노원81 △소대봉84
△송기국76 △신예리87 △신원식73
△오성민97 △윤대근81 △윤상익81
△윤상필84 △이동림88 △이선일79
△이성영82 △이용기86 △이재학82
△이준호91 △이한목72 △임채희84
△장대철84 △정용모83 △조용일77
△조용호87 △조희태83 △진재기83
△최연혜75 △홍성범87 △홍종선75
◆사회대 △강성두78 △강철원76
△곽대환81 △권태훈87 △김 영79
△김광덕82 △김광영82 △김규수87
△김기식85 △김기준77 △김만환79
△김소용79 △김승희87 △김연광80
△김은진93 △김준한71 △김진국78
△김창균80 △김형규85 △김호일81
△김희철81 △노택선79 △류성록82
△문준석92 △민병덕90 △박 철81
△박재진89 △박재하77 △박종국73
△박준서80 △박찬호76 △박희택96
△방창식83 △배현기84 △서동영79
△서명국84 △서영준69 △성은식76
△신기덕74 △신영호88 △안승윤81
△오재석78 △온기선77 △유은상78
△윤용순92 △이동관76 △이상일81
△이상현82 △이석준78 △이재열80
△이종선87 △이창수85 △임영택80
△임희택78 △장성호86 △장철호83
△장홍근81 △전주현90 △정동철80
△정봉교72 △정상철78 △정성호81
△정예모78 △정응균87 △정종재82
△정종호83 △정지만78 △정현민81
△제민호82 △조동환82 △주병기89
△주흥민91 △최범수75 △최영선77
△표희선76 △한창욱92 △홍기현76
◆자연대 △강경관70 △강봉근80
△기준학81 △김광준81 △김진복74
△김희웅83 △노동진89 △박영준92
△박용철72 △박태욱95 △석희웅82
△송세안75 △안명환83 △원유덕81
△유상준76 △윤용하84 △이근희82
△이수용75 △이영우73 △이재철71
△이충렬00 △이현식73 △정철희75
△정현미82 △조완제84 △조재린90
△진 민78 △최승주72 △최진우75
△홍광현77 △황동규84 △황열순86
◆간호대 △박선애73 △신순애83
△이인옥74 △전귀남83 △홍경자62
◆경영대 △강태웅79 △강한수87
△김성전84 △김영모79 △김홍섭79
△김학식76 △남수현87 △노정익72
△노진만83 △모과균84 △박주선86
△박찬호83 △변재진72 △서정호88
△성기만84 △송덕호78 △안병룡84
△오태일73 △유병인69 △유주환85
△이상수73 △이성엽89 △이윤종80
△이재욱88 △이준구91 △이현우83
△이호선75 △전선규78 △정희정94
△조성문84 △조표훈95 △최용일89
△최종욱89 △최창목82 △허두석93
◆공대 △강경태84 △강진이73
△강우영88 △강희신85 △고동일93

△공철규57 △곽성용77 △곽수태78
△구자령82 △구현모72 △권경준95
△관상익91 △김 한74 △김 훈71
△김경호75 △김광무83 △김광욱56
△김광원85 △김기남73 △김남호70
△김도심52 △김동규72 △김동성73
△김동진83 △김명수73 △김병규76
△김병렬76 △김성기80 △김성도75
△김성은89 △김세준83 △김영수58
△김영신89 △김영학00 △김영호78
△김용수71 △김용수71 △김인동80
△김재승72 △김정인94 △김정철55
△김정훈03 △김종윤93 △김지상81
△김지수76 △김창택78 △김철호85
△김태문70 △김학세65 △김현준85
△김희령86 △남보우76 △남상률70
△남승윤82 △남장수64 △류무열77
△목희수70 △문승현79 △민경식67
△민병진82 △박경수76 △박동서61
△박동식68 △박봉엽71 △박상봉87
△박상서83 △박인근75 △박인오83
△박정진84 △박종규88 △박종택48
△박종근70 △박진수70 △박찬석92
△박한목87 △박해룡72 △박현길75
△박화규77 △박흥철51 △박희경73
△방병선79 △배성한02 △배영호63
△백문석85 △백승욱58 △백원필78
△백호봉70 △서강석78 △서동식81
△서동원70 △서병수82 △서완수69
△서전석77 △선병수81 △선우준76
△설재현92 △성기조51 △소동섭70
△송병륜05 △송창영68 △송하영74
△신경철76 △신동성64 △신동식51
△신영수74 △신현욱92 △신희승71
△심동석84 △안기식83 △안동만66
△안상순65 △안용호88 △안정욱02
△안종찬69 △양 갑68 △양기정67
△양운재69 △양재균79 △어성준67
△여동욱86 △여인선75 △여태승82
△연상호83 △오경식75 △유영제70
△유준만63 △윤경목01 △윤국노62
△윤맹현66 △윤석구53 △윤세한79
△이강우79 △이경신82 △이계환62
△이교성77 △이금석59 △이기자93
△이덕택78 △이덕원75 △이동욱79
△이동욱82 △이동희85 △이병철80
△이봉주67 △이상선84 △이상호66
△이수남69 △이승기70 △이승욱91
△이원진89 △이원표72 △이윤표77
△이인원69 △이재운63 △이재은61
△이정국62 △이정만70 △이제훈84
△이종국87 △이준성88 △이종재64
△이지원81 △이진우80 △이찬홍74
△이창진94 △이철원80 △이춘성71
△이태순79 △이태현95 △이현석94
△이현순69 △이효주77 △이희영76
△임민수66 △임채용89 △장민석92
△장상배82 △장성호94 △장영원66
△전대영85 △정 진84 △정기로82
△정명식50 △정무진64 △정옥희52
△정태식92 △정태영75 △정한중77
△정호규80 △조국영92 △조영주74

△조필제46 △최상현77 △최영석84
△최원철69 △최재권74 △최재평92
△최종욱69 △최준민77 △최준식71
△하규성76 △한상흙85 △한성수83
△허성윤90 △허욱렬70 △허준호86
△홍성일66 △황인석68 △황일인59
△황정태88 △황택수73
◆농대 △강인석81 △강인섭73
△강철기76 △고덕구75 △권오준65
△권재홍83 △금태섭73 △김경하71
△김동태62 △김병운69 △김승로01
△김양재78 △김완기65 △김용관85
△김원보73 △김윤조89 △김은섭73
△김정근72 △김종연91 △김주양86
△김준영84 △김진구82 △김태동80
△김태수66 △김현구50 △김현태84
△김희성61 △노규식76 △명인종73
△목진만02 △민경택88 △민성훈89
△박경호84 △박동규56 △박명영89
△박상순86 △박상용83 △박승우67
△박옥임70 △박중주66 △박창용65
△방화원80 △서광섭79 △서원호74
△서정근59 △선우정원81 △성낙근79
△손진규82 △손해일67 △송경빈75
△송경호56 △송기덕55 △송한용83
△신민종79 △심상후81 △양재승70
△여강연80 △염익환78 △염대영80
△오박철61 △왕진무60 △유 석59
△유문일66 △유병두73 △유세현79
△윤여성76 △이규승67 △이기은83
△이덕남69 △이무근60 △이병목64
△이상용61 △이석한82 △이석한82
△이성수67 △이세표55 △이승겸75
△이연숙65 △이원덕80 △이원재80
△이전제70 △이종현80 △이진희81
△장승호81 △정복현74 △정상호86
△정세진70 △정일성62 △정필수66
△정해각55 △조규태74 △조수경72
△조영래82 △조재구83 △조진환50
△조호연77 △지원철73 △진영호66
△최락현61 △최병원77 △최병영75
△최원규64 △최원철94 △최중섭79
△태용문82 △한갑준52 △한용규99
△한재용80 △함종환63 △허 명78
△홍동선56 △황인엽74
◆문리대 △고영재69 △곽영찬70
△권태승55 △김 욱69 △김기주54
△김대성61 △김동선57 △김옥남52
△김윤철67 △김진동58 △김춘석69
△김흥규69 △나기웅70 △남찬순68
△문무홍67 △박동수46 △박성훈69
△박익송60 △박정무59 △박정운70
△배성근56 △안소연65 △양철주59
△염경일64 △염기영70 △유정열52
△윤호미61 △이상열71 △이성덕56
△이성우63 △이용태53 △이정윤54
△이충희54 △이형구59 △임형택62
△장홍주70 △전성철69 △정 광62
△정연하61 △조영수64 △지경홍60
△최 웅69 △최병서71 △추호경65
△하영식58 △한박무66 △한창호65
△한필순57 △홍종호62 △황종철67
◆미대 △강웅기94 △김 정70
△김선미88 △김성희82 △김영대67
△김용진79 △나명희66 △박정기64
△백득기46 △송근영86 △우병택76
△유영일83 △윤선이87 △윤옥진64
△이진민83 △임홍순48 △장 훈99
△전민숙74 △정병구66 △정종미76
◆법대 △강만수65 △강상진87
△강승규80 △강영근84 △강형중84

△강희철⁸¹ △경우근⁶⁷ △고현철⁶⁵
△곽종훈⁷¹ △구남수⁸¹ △구재근⁷⁶
△권은민⁸² △기우종⁸⁵ △김 신⁷⁶
△김 욱⁸⁶ △김건식⁷³ △김경태⁶³
△김계인⁶⁴ △김권택⁶³ △김규복⁶⁹
△김덕주⁵² △김동훈⁷⁷ △김병국⁶⁶
△김봉화⁷⁰ △김상우⁸⁶ △김상일⁸³
△김선욱⁶³ △김성길⁶⁰ △김세중⁸²
△김수목⁸³ △김승중⁶⁸ △김승호⁶²
△김영광⁸⁴ △김영기⁶⁶ △김영우⁵⁶
△김영욱⁷² △김영태⁸⁴ △김용환⁶⁰
△김유동⁸⁶ △김윤기⁷⁵ △김이수⁷²
△김재정⁸² △김정보⁶⁷ △김정일⁹⁷
△김정후⁵⁷ △김제성⁹⁵ △김제식⁷⁷
△김종구⁵⁹ △김종률⁸¹ △김종호⁸⁰
△김종훈⁸³ △김준규⁷⁵ △김진우⁵²
△김진환⁶⁷ △김창희⁸² △김철만⁸⁷
△김철수⁵² △김춘호⁸² △김태훈⁶⁸
△김형선⁵⁷ △김형수⁷⁷ △김호응⁷²
△김호철⁸⁵ △김희수⁸⁰ △김희주⁸⁴
△도정환⁸³ △류수열⁷⁵ △목영준⁷⁴
△문대성⁸⁵ △문상일⁸⁴ △민수광⁶⁰
△민일영⁷⁴ △박 만⁷⁰ △박강희⁸³
△박광전⁸¹ △박교선⁸² △박기태⁷⁶
△박병규⁵⁵ △박상기⁵⁶ △박상길⁸²
△박성진⁸⁴ △박순백⁶⁶ △박영렬⁷⁵
△박용석⁷⁴ △박재태⁸¹ △박해봉⁸³
△박현순⁷³ △박희문⁷³ △배 도⁵³
△배용찬⁸⁶ △백덕열⁶⁷ △서정석⁷⁷
△서창희⁸² △송달룡⁷⁸ △송상규⁸⁴
△송석봉⁸⁷ △송쌍중⁶¹ △송영철⁸⁰

△송창현⁶⁹ △신성철⁶⁵ △신영철⁷²
△신현욱⁶⁶ △신현일⁷⁷ △신호철⁶¹
△신희기⁸² △신희택⁷¹ △심우영⁵⁹
△안건희⁷⁸ △안경환⁶⁶ △안병우⁶⁶
△안병익⁸⁸ △안성희⁶⁶ △안재영⁷⁰
△안창환⁸⁴ △양인석⁷⁵ △양희영⁵²
△여상원⁷⁷ △염용표⁹² △오대혁⁸⁴
△오병주⁷⁵ △오정면⁸⁶ △오천석⁷⁶
△유 훈⁴⁹ △유병규⁸³ △유원규⁷¹
△유정호⁶² △윤보옥⁶⁶ △윤우진⁷¹
△윤재기⁶³ △윤준원⁶⁷ △윤형환⁶⁶
△은현호⁸⁷ △이건리⁸¹ △이관표⁷⁵
△이광만⁸¹ △이광범⁷⁷ △이규홍⁶³
△이기배⁷¹ △이대우⁶⁷ △이동명⁷⁵
△이동홍⁶⁸ △이두봉⁸⁵ △이문재⁶⁵
△이민재⁷² △이병호⁸⁶ △이상래⁸²
△이상환⁷⁸ △이상훈⁷⁴ △이선우⁷⁴
△이성호⁷⁶ △이원호⁶¹ △이인상⁶⁰
△이재성⁷⁸ △이재창⁵⁶ △이재환⁷⁵
△이정락⁵⁸ △이정민⁸⁸ △이종순⁵⁷
△이중훈⁷⁸ △이진우⁷⁸ △이철승⁷⁸
△이춘성⁷⁴ △이해진⁸⁶ △임도빈⁶⁵
△임종훈⁷³ △임한흠⁷³ △장성원⁹⁹
△장준철⁶⁷ △전창영⁷⁴ △정경택⁷⁰
△정경호⁹⁴ △정대권⁷⁵ △정대철⁶²
△정문화⁵⁹ △정연조⁵⁵ △정준영⁸⁵
△정태용⁹⁵ △조용무⁶⁰ △조윤희⁸⁶
△조정규⁶⁸ △조준연⁸⁵ △조준환⁶⁵
△조태열⁷⁵ △조해현⁸¹ △주성민⁶⁹
△주우식⁷⁸ △진창수⁸⁶ △치문호⁸⁸
△채주엽⁹¹ △최강호⁶⁷ △최경자⁹¹

△최귀인⁵⁶ △최기선⁶⁴ △최상목⁸²
△최석원⁵² △최성우⁸¹ △최연희⁶⁴
△최우식⁷⁵ △한상태⁵⁶ △한승철⁸²
△한주상⁶³ △한준엽⁶⁹ △함영엽⁵⁷
△허영범⁸⁸ △현병무⁵² △현순도⁶⁶
△홍성식⁷⁰ △홍광식⁶⁷ △홍성무⁷³
△홍성필⁸⁹ △황성일⁵⁶ △황의인⁷⁴
△황찬현⁷² △황철규⁸³
◆시대 △강순규⁷⁶ △강하구⁶⁸
△고문주⁷⁶ △고영신⁷³ △곽봉조⁷⁰
△곽장신⁷² △구성희⁵⁵ △권원태⁷⁴
△권재술⁶⁶ △김경자⁷¹ △김남조⁴⁷
△김두정⁷³ △김선주⁷⁶ △김수연⁸⁷
△김승권⁷³ △김억관⁶⁷ △김영애⁶⁴
△김영조⁷⁴ △김영화⁷⁶ △김유명⁶⁹
△김윤미⁹⁴ △김점술⁸² △김종문⁷²
△김종필⁴⁶ △김종화⁶⁸ △김준환⁶¹
△김지은⁹² △김진원⁵⁶ △김천수⁵⁸
△김혜영⁸⁰ △김효진⁸⁵ △나동진⁶⁶
△류근찬⁶⁸ △문제세⁷¹ △박문수⁷⁴
△박병기⁸¹ △박봉상⁵⁹ △박상필⁷⁶
△박영미⁷⁵ △박영태⁶⁷ △박완규⁸⁰
△박원규⁸⁹ △박재공⁶² △박정남⁵⁷
△박제동⁷⁰ △박중앙⁸⁵ △박전배⁷⁴
△박화엽⁶⁴ △박효석⁷⁰ △백승권⁵³
△석용집⁷⁷ △성낙돈⁷⁴ △송영아⁸⁸
△송장섭⁶⁹ △송재숙⁷¹ △신찬우⁴⁸
△심장만⁸⁴ △안광화⁶³ △안창섭⁶¹
△여태철⁸⁴ △오두범⁶⁴ △온기수⁷⁰
△왕문용⁶⁶ △우성기⁷⁴ △유승연⁷³
△유영목⁷⁷ △유환옥⁷⁸ △유희임⁶⁸

△윤석원⁶⁸ △윤재석⁷¹ △이경복⁶⁹
△이동식⁷² △이득우⁷⁴ △이봉수⁷⁴
△이상규⁵⁶ △이선준⁴⁸ △이성현⁵⁶
△이원강⁵⁷ △이원희⁷¹ △이은희⁹²
△이재원⁷⁰ △이재희⁷⁴ △이종덕⁶⁰
△이종승⁶⁵ △이주연⁷⁹ △이준동⁶⁰
△이지연⁸² △이창득⁷¹ △이형윤⁷¹
△이홍자⁷⁰ △이환기⁸¹ △이환희⁵⁴
△임찬희⁷⁸ △임효숙⁸¹ △장보성⁸⁶
△장종산⁸² △전인수⁷⁵ △정귀생⁵⁸
△정동준⁸⁰ △정봉문⁹¹ △정상관⁷²
△정신화⁷¹ △정연만⁷⁹ △정용길⁷⁷
△정원식⁴⁸ △정지오⁷³ △정찬모⁶⁶
△조경오⁷⁵ △주경식⁶⁸ △최안기⁷⁰
△최요섭⁷¹ △최문식⁶³ △최희우⁶⁸
△한도연⁴⁹ △한상현⁶⁸ △허영섭⁷⁴
△현성준⁷⁸ △홍석영⁸⁵ △홍인수⁷⁴
◆상대 △곽윤광⁶⁰ △구영보⁶⁹
△권영식⁶⁶ △권혁수⁵³ △김기중⁵⁷
△김기회⁶⁶ △김뇌명⁶³ △김동식⁶¹
△김만경⁵³ △김병식⁶⁸ △김상희⁶⁶
△김성규⁵⁷ △김윤일⁶⁶ △김재순⁴⁷
△김종서⁵⁸ △김창달⁵³ △김창수⁶⁸
△김철영⁷⁰ △문성환⁷¹ △박동순⁵⁷
△박종민⁶⁴ △박진화⁵⁵ △서영택⁵⁸
△서충석⁷¹ △신정철⁶³ △우찬목⁵⁵
△유원영⁵⁷ △유장희⁵⁹ △유진무⁶²
△유희선⁶⁵ △이갑현⁶¹ △이국희⁵⁶
△이대우⁷² △이동혁⁶⁵ △이용성⁵⁶
△이재규⁶⁵ △이종운⁶⁴ △임종두⁶¹
△장병구⁶⁴ △장종록⁵⁷ △정 용⁶¹
△정재택⁵⁸ △정주호⁶⁵ △조원구⁶⁴
△조창제⁵⁷ △최남식⁵⁹ △최형주⁶⁶
◆생활대 △김명경⁸³ △김성은⁸³
△김영미⁸³ △김운정⁹³ △김정주⁵⁶
△염윤경⁷⁸ △윤혜원⁸² △이성란⁸³
△이용호⁷⁸ △정광호⁵⁷ △조혜옥⁵⁹
◆수의대 △김계방⁶¹ △김남식⁸³
△김남훈⁸⁷ △김운수⁷⁴ △김한태⁷⁸
△나종국⁵⁴ △남궁선⁵⁷ △박성권⁷⁴
△박재학⁷⁷ △박전교⁷⁴ △방극승⁶⁴
△배상호⁶⁴ △백영환⁵⁶ △서강문⁸²
△송치용⁸³ △신래섭⁵⁶ △신현덕⁸⁰
△신현일⁵⁷ △엄영호⁷⁷ △오화균⁸⁸
△이강남⁶⁶ △이범준⁷⁸ △이상인⁸²
△이상모⁷⁸ △조은제⁸⁰ △홍상희⁸²
◆약대 △김경찬⁹¹ △김명수⁷¹
△김수경⁵⁷ △김용남⁷⁷ △김의영⁸⁰
△김장호⁶⁵ △김재근⁵⁹ △김재환⁶⁸
△김정기⁶⁹ △김진형⁸⁸ △김태근⁷¹
△김효중⁷¹ △맹민영⁵⁶ △박대창⁶⁹
△박승규⁵⁹ △박은유⁸³ △박태동⁷⁷
△배영일⁶⁰ △손인자⁶⁹ △손정식⁷³
△신화용⁴⁶ △심현주⁸⁵ △안병주⁶⁹
△안원준⁸⁰ △오연준⁵⁶ △원희목⁷³
△유태숙⁷² △이상희⁶² △이용연⁷²
△이일영⁵⁶ △전창수⁷⁴ △조경일⁶⁴
△조경호⁹⁴ △조정식⁶² △주학유⁷⁰
△최광조⁶⁸ △최규진⁹⁰ △최규팔⁷⁰
△최근욱⁷⁴ △최선식⁶⁴ △최수영⁷⁹
△한방숙⁶⁶ △허 상⁵⁸
◆음대 △김금수⁷⁶ △김순옥⁷³
△김영숙⁸⁵ △김종필⁸¹ △김지윤⁹³
△김현이⁸² △김혜중⁶⁹ △남지현⁸⁵
△문경해⁷⁸ △민미란⁷³ △박희덕⁷⁷
△변우석⁹⁰ △서유석⁸⁹ △서윤진⁹⁴
△신상호⁷⁴ △유신선⁷⁹ △윤기숙⁸²
△윤이근⁷⁴ △윤제상⁷⁸ △이기원⁷⁶
△이명희⁶⁸ △이문경⁷⁶ △이방실⁹²
△이영심⁷⁸ △이영자⁵⁶ △이용일⁵⁷
△이재숙⁵⁹ △이한돈⁶⁵ △이혜정⁸¹

△임정원⁸³ △정혜선⁸¹ △홍승현⁸¹
△황영기⁸² △황응준⁸⁷
◆의대 △강권철⁶⁹ △강승백⁸²
△강신호⁴⁶ △고영채⁷⁴ △고종현⁷⁴
△국형철⁷⁶ △김광희⁵⁵ △김규한⁷⁶
△김기락⁶⁸ △김기범⁹² △김동윤⁷⁶
△김미숙⁸⁴ △김병철⁸⁵ △김영태⁸⁴
△김예원⁶⁸ △김종성⁷¹ △김종환⁵⁰
△김창욱⁷² △김한수⁸² △남상민⁸⁵
△노충희⁷⁰ △문석배⁹⁷ △박근우⁹²
△박노현⁷⁸ △박상용⁵⁷ △박성근⁸⁹
△박소배⁷² △박영관⁵⁸ △박영태⁷⁰
△박이태⁷² △박지영⁸² △박호진⁷²
△백종일⁸³ △손근찬⁵² △손기섭⁵¹
△손봉기⁷³ △송인배⁷³ △신기철⁷⁵
△신종근⁸⁷ △신주호⁸¹ △심성은⁹¹
△안용태⁶⁹ △양세원⁷⁸ △양솔문⁹⁰
△양영식⁶⁶ △오병희⁷¹ △유경상⁶⁴
△유성렬⁷¹ △윤용범⁶⁶ △이 행⁸⁰
△이갑순⁵⁵ △이규훈⁸⁵ △이동규⁷⁷
△이상근⁷³ △이순형⁵⁶ △이영돈⁷³
△이윤호⁶⁸ △이의돈⁶¹ △이의용⁷²
△이종복⁷⁹ △이진호⁷⁶ △임미향⁹⁷
△임승운⁷⁴ △임준희⁹³ △장수진⁹⁶
△전영훈⁷⁴ △정 민⁷⁵ △정 석⁹⁴
△정규환⁹⁶ △정동철⁵⁴ △정범영⁹⁴
△정유조⁸⁵ △조남혁⁷⁰ △조상현⁸⁰
△진홍용⁷⁰ △최동수⁵⁴ △최세준⁵³
△한경일⁸⁴ △한규섭⁷² △한병채⁵⁸
△함돈일⁸⁴ △홍순우⁸⁵ △홍정룡⁶⁹
◆치대 △강민섭⁸¹ △김 욱⁸⁶
△김 일⁵¹ △김각규⁷¹ △김강주⁷⁹
△김능세⁷⁰ △김봉호⁵⁶ △김윤이⁷³
△김응만⁸¹ △김인수⁸² △김종우⁶⁶
△김종철⁷¹ △김종훈⁷³ △김태의⁶⁰
△김효은⁸² △나병선⁶⁹ △문진석⁷⁶
△문형주⁷⁹ △박기성⁵⁵ △박동욱⁶⁷
△박상규⁹³ △박용환⁷⁸ △박우찬⁶⁸
△박재간⁷⁹ △박홍규⁷¹ △방수남⁶²
△배현성⁶⁴ △백위현⁶⁶ △서명우⁸³
△서문석⁷² △손일수⁷¹ △송재용⁸²
△신동인⁷⁶ △안건도⁸³ △안순찬⁸³
△연태호⁸¹ △윤봉원⁷⁹ △윤학영⁶²
△이경우⁷¹ △이규철⁶⁴ △이상태⁷⁰
△이상재⁷⁵ △이승중⁶⁹ △이의석⁹⁶
△이장훈⁵⁷ △이재용⁷³ △이재호⁸⁰
△이정민⁹² △이창우⁷⁵ △이창룡⁷⁰
△이택훈⁷¹ △이현석⁸² △이형규⁵⁷
△이혜자⁷⁷ △임용준⁶⁵ △임채균⁵³
△임형순⁶³ △장도훈⁷⁰ △정원용⁵²
△정재영⁷⁰ △정행남⁶² △조경석⁷⁹
△조광현⁷⁰ △조행자⁶⁴ △최낙준⁷²
△한광수⁷² △한우석⁷⁶ △한충일⁷⁸
◆대학원 △강경규⁸¹ △권부섭⁸¹
△김경진⁸⁴ △김광윤⁷³ △김병주⁸⁵
△김삼수⁸⁷ △김상호⁷⁹ △김석근⁸¹
△김창준⁸⁶ △김현택⁸² △나병만⁷⁷
△남재국⁸⁸ △박복만⁶⁶ △박성호⁹⁵
△손정모⁸³ △손충기⁷⁹ △오진욱⁹²
△유장훈⁸⁶ △윤민재⁹⁰ △이광재⁷⁸
△이동필⁸¹ △이상엽⁸⁶ △이석연⁸¹
△이양근⁸³ △이종규⁸⁸ △이혁구⁸⁶
△전용기⁸² △정성렬⁸⁵ △조대우⁷⁹
△조재연⁸² △최계은⁸² △최윤정⁹⁴
△토모쿠니⁹¹ △황인자⁷⁸ △황철용⁹⁶
◆경대원 △김정태⁶⁸ △이철우⁶⁹
△최원영⁹³
◆교대원 △송향섭⁶⁴
◆보대원 △김진한⁸⁷ △류문진⁹²
△박남용⁹² △서은하⁹⁶ △유용래⁸⁵
△유희중⁹⁰ △윤지선⁹⁴ △이윤현⁸⁹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02-799-7979

△정진택⁸⁴ △조경복⁹² △조경중⁶⁸
△허인남⁸⁰ △황석전⁸⁰

◆사대원 △석용진⁶⁵

◆신대원 △김태문⁷¹ △유일상⁷²
△유일연⁷²

◆행대원 △강훈철⁸⁰ △구기성⁸⁹
△김익영⁶⁸ △노일숙⁷⁹ △문화갑⁶⁶
△박병권⁸² △박우순⁷⁶ △송병희⁸⁸
△신호현⁸⁴ △염준호¹² △오태영⁸⁵
△이원기⁶⁷ △이주석⁸⁴ △이재필⁸³
△장성호⁸⁵ △장완호⁹⁵ △정시영⁹³
△정여철⁷⁴ △정창훈⁰⁵ △정현욱⁸⁸

◆한대원 △김수철⁷⁶ △박동전⁸⁷
△박종일⁸⁴ △윤종식⁸⁹ △이평재⁷³

◆AMP △강민희⁵¹ △고시목⁸
△고은봉³³ △공희식⁷² △김도현⁷²
△김영만⁶⁵ △김용환⁷² △김익현⁷²
△김진섭⁹ △노태식⁶⁴ △문만빈⁷⁵
△박영대¹ △박영서¹⁴ △박원규⁵⁰
△백복인⁷¹ △석 강⁶¹ △신지윤⁶⁶
△심계진³⁶ △심재만⁷⁵ △양희강⁷⁴
△염병만⁷¹ △오도환⁷² △유대운³⁷
△유진석³² △유춘용³¹ △유해준⁴⁰
△육신학⁵⁷ △윤승철⁷³ △윤용암⁶⁶
△윤종수²³ △윤종호⁴⁸ △이내흔²⁵
△이수증²⁶ △이용철⁷⁵ △임성규⁷³
△전용배⁵⁷ △정영대⁴⁸ △정용동⁷³
△정원태⁷³ △조봉구¹⁹ △조영철⁷⁴
△조인수⁷⁴ △조형수⁵⁸ △최세필⁵⁴
△최종욱¹⁵ △최종원⁷³ △허덕령²
△홍승표⁶⁸

◆AIP △권영렬¹⁹ △권오열²²
△김경환¹³ △김극배⁴⁸ △김대원⁴⁸
△김성길⁷ △김성화⁴⁶ △김용태³⁰
△김유미⁴⁶ △김유태⁴⁴ △김준석⁴⁶
△김창진⁴⁸ △김태환³¹ △나재암⁷
△박남규⁴⁷ △박병철⁴¹ △박승욱²¹
△박양수⁴⁶ △박영욱³⁸ △박정오¹⁶
△박희재¹ △송태진²² △양희준¹⁶
△엄성욱⁴⁷ △예상호⁸ △유영준⁴⁷
△윤명수³⁰ △윤재영³⁶ △이덕영²³
△이동훈²⁰ △이명호²⁰ △이상원²⁰
△이석우⁴⁹ △이석원³⁶ △이세영¹³
△이은택⁶ △이재서¹¹ △이창섭²⁹
△임봉순¹⁶ △전영하²⁸ △정창현²⁰
△정하결⁴⁵ △정희용²⁷ △조창식⁴⁵

△조태웅¹⁸ △주영현¹² △지해환⁴⁹
△진영환⁹ △최익선²⁵ △한옥문⁴⁵

△허 열⁴¹ △홍두선⁴⁹

◆ACAD △고세일³² △권영호⁶⁰
△권오형⁷³ △김경래¹⁸ △김광수⁶⁸
△김무수⁷⁴ △김성현⁴⁰ △김시호⁷³
△김용삼⁷³ △김점수⁷⁴ △김종해⁷¹
△김창식⁴⁵ △김철환⁴⁶ △노재우¹⁶
△노희식³⁸ △박인복⁴⁷ △석동연⁵³
△손재권⁷³ △신태용⁷³ △심재금⁷³
△유재필²³ △윤석준³³ △이강국⁶³
△이상종⁷³ △이상철³³ △이연수⁷²
△이영희⁵⁷ △이종우⁶³ △임충규⁴⁵
△장기윤⁷² △장진영⁶² △조건창⁴⁹
△조주태¹⁴ △최수근⁵¹ △황갑주⁴⁸
△황계윤⁷³ △황상모⁶⁶

◆ABP △강구현³⁵ △박정호³⁸
△박하용³⁹ △배택재⁴¹ △배영운³¹
△서규찬³⁶ △서재선⁴⁰ △서준용⁴⁰
△손기석³⁹ △심형보¹⁶ △유영희³⁹
△윤해진²⁹ △이무성³⁸ △이상락⁴
△이상래²⁴ △이수남³⁹ △이은석³⁶
△이현구³⁹ △임경상⁹

◆SGS △강중원²⁰ △권오신⁵
△김기문²⁶ △김수근² △김호영²
△박정호⁵ △신경근²⁷ △인영대²²
△이권의¹⁴ △이래원⁶ △임경보¹¹
△조백일⁶ △조영규²⁸ △조용기¹⁹
△차원갑⁵ △최상석² △최원오²⁶
△허성호²⁶ △허충화¹⁴ △황선주²⁷

◆CHCN △문순자¹¹

◆APC △권상태¹⁰ △권혁민¹⁸
△김명섭³ △박동근¹⁸ △박동기¹⁶
△신현용¹⁷ △안 기¹⁵ △안무경⁴
△정만모⁹ △조규정¹⁷ △조성구⁷
△조주현¹⁸ △최상현¹⁸ △하정호⁸
△한길호⁴

◆HPM △고영선²⁶ △권기진⁸
△김강희¹¹ △김동광²⁷ △김명중⁶
△김병수⁹ △김성훈²¹ △김주필⁴
△김찬익³⁰ △김현수² △복성철³⁰
△성현제⁷ △심준보²⁶ △안영미²⁸
△이석기¹⁴ △이정희¹² △이한구¹⁰
△임동호¹⁰ △임신규³⁰ △장성호⁶
△장해영²⁸ △전성혁¹³ △정성민²⁸
△정지문¹⁴ △조이만²⁹ △주범모²
△최낙원¹⁶ △최병용⁹ △최진호¹⁹

△하경호²⁷ △하병철²⁸ △하우형²⁹
△황영집²⁶

◆AMPP △김명남⁵ △김종민⁴
△김종배¹² △남정명¹ △서영교¹¹
△손병호¹² △이상철⁵ △이생기¹²
△이인근² △이종만⁵ △이태규¹³
△전제원¹² △정종수² △조현국¹²
△진노석⁴ △홍석우⁹ △홍창식¹²

◆AIC △강선무²⁸ △곽복동²⁸
△권성욱⁸ △김동현²⁵ △김민철³¹
△김석영²⁵ △김영배² △문명연⁶
△박 훈¹² △박명진³³ △신원식³²
△신재식³³ △안희주²⁶ △왕진원¹¹
△이상석²⁴ △이응대³⁵ △이인기¹¹
△이정재² △이종대¹⁸ △이종봉³³
△정동욱³³ △정홍채²⁰ △조정구⁸
△최인환³⁴

◆AFB △권병환¹⁰ △김관택¹⁰
△김병관¹² △김성하¹² △김정민²
△김호운⁴ △미수진¹² △문창동¹²
△박 윤⁹ △박희성¹² △방윤석¹⁰
△방주득¹¹ △양근영¹⁰ △이영두⁹
△이용택¹¹ △정종구¹² △조수환¹²
△최동진¹¹

◆AMPFRI △강림구³⁰ △김복엽²³
△김재원¹⁷ △배명섭⁹ △백두철⁹
△서강인³⁰ △윤명희³⁰ △이기종¹
△장봉열³⁰ △천병기¹⁹ △한기영³

◆ACMP △권정훈⁸ △김선규²
△김수용⁷ △두강현¹⁰ △박세원⁹
△박현일⁸ △박홍석⁶ △안익성⁸
△오병삼⁵ △이성만¹⁰ △이정현⁵
△진성의⁴

◆FIP △고영수² △김성하⁶
△김시현⁹ △박성환⁹ △윤호석⁸
△이인화⁵ △정연삼⁹ △황국현⁴

◆GLP △강대철²⁵ △강병섭²¹
△강창식¹⁴ △구윤관²⁷ △김규영¹⁸
△김용직¹⁵ △김중대²⁰ △김호진⁵
△노길환²⁶ △박양숙²² △박영식¹⁸
△박홍순²⁷ △방관수²³ △서재섭²⁴
△손양석²⁵ △손영수³ △신명진¹³
△오병석²⁰ △유시현⁷ △윤재호¹⁴
△이경승²⁷ △이기호²⁶ △이석형¹²
△이성호¹³ △이영우²⁷ △이우영²⁴
△이원욱¹¹ △이형석²³ △이훈수¹²
△장성수²⁴ △전광일²⁷ △전진규¹⁶

△정용기¹⁴ △조복기²⁷ △차기민¹⁶
△최도승²⁴ △최화선¹² △한충권²⁰
△홍영화¹⁶

◆ALP △권동환² △김 오¹⁶
△김경일³ △김민성¹⁶ △김수연¹⁶
△김영진¹⁶ △김태유¹⁵ △남기현¹⁵
△문정립¹⁸ △백종각¹² △여용동¹⁴
△오도영¹ △유득상¹⁷ △이광수¹⁵
△임영철⁵ △장덕근¹⁶ △좌상봉¹²
△허영호⁴

◆SPARC △구능본²¹ △권영범¹¹
△김 건⁸ △김미셀²³ △김미아²³
△김성택²⁰ △문병무²³ △박대현²⁰
△박승식⁶ △박윤환²⁰ △손정우¹⁵
△손태일¹³ △이해경²³ △최광종⁶
△최만범²¹ △허미연²⁰ △홍순우¹⁵
△황인옥²¹

◆AFP △김성주¹¹ △김창목⁹
△박희석⁹ △양오승¹¹ △이창식⁶
△진수형⁹ △하현희⁵

◆ASP △김시화²⁴ △김용두²⁵
△김원환²⁵ △김정원²⁵ △김종완²³
△김태희¹² △김희창²⁴ △노경학²¹
△서우택²³ △성순경¹⁰ △전귀상²⁴
△정연호²⁵

◆IFP △강대영⁹ △권영용⁶
△김대하¹ △김문학⁵ △김상호³
△김옥희⁴ △노일호⁹ △박주완⁶
△손성기⁶ △이기원⁵ △이성건²
△이승득¹ △조용우⁴ △진은민⁶

◆BCP △강예규⁷ △권영진⁶
△김영순¹⁰ △박상원¹⁰ △박정수³
△박종우¹² △신철수⁹ △오영호²
△지용환¹⁰ △최성원² △최수일¹
△황해령⁷

◆ABKI △강정은³ △김봉규¹
△김진목¹ △김진학² △배정현¹
△여명관³ △이현성¹ △정해돈²
△최명숙² △최은철³ △최인숙³
△현상섭²

◆KFL △백미혜¹¹

일 반

◆인문대 △김대환⁸¹ △김민지⁰¹
△김원희⁰⁶ △서영민⁰² △성관정⁰⁶
△윤상현⁹¹ △이승재⁷⁹ △전순익⁷⁴

△최기용⁷⁴ △홍범식⁸³ △황진상⁹⁸

◆사회대 △고홍석⁹⁰ △김강이⁰⁷
△김덕수⁸⁴ △김동욱⁸⁷ △김병규⁰⁵
△김봉준⁰⁰ △김영남⁸⁶ △김일권⁰³
△방진욱⁹¹ △손종원⁸¹ △송상종⁷⁸
△양길용⁹⁵ △이광오⁷³ △이세준⁸²
△이승훈⁰² △이완희⁸² △이찬복⁹⁸
△정삼봉⁷³ △정용진⁹⁸ △정지웅⁹⁸

◆자연대 △권혁준⁰⁶ △김남우⁰³
△김수정⁰² △김지예⁷⁸ △김한결¹¹
△박용호⁰⁰ △박유나⁹⁶ △박제근⁸⁴
△서영만⁷² △신재혁⁰⁷ △윤상은⁰⁷
△윤화식⁷³ △이지희⁸⁴ △장종만⁷²
△정인권⁹⁰ △조동원⁷³ △채현우⁰⁷
△현민아⁰²

◆간호대 △고혜명⁶⁵ △권오겸⁵⁶
△권인각⁷⁷ △김광숙⁵⁸ △김기희⁶⁵
△김재희⁸⁴ △박현자⁶³ △범지현⁰³
△신은숙⁶⁵ △최정옥⁵⁵ △홍문정⁸¹

◆경영대 △권용기⁷⁵ △김완빈⁷⁴
△김운호⁸⁸ △김원구⁷⁸ △김주연⁰³
△김환국⁸¹ △박영안⁷² △오진환⁷⁷
△윤종빈⁶⁸ △이철주⁸¹ △정지택⁸⁷
△조진형⁰⁵ △허승호⁸² △황동철⁷⁵

◆공대 △강병철⁹² △고근희⁵⁴
△곽동수⁶³ △곽두영⁰⁵ △구영호⁷²
△구정모⁹³ △권기동⁶³ △권봉일⁶⁹
△권오석⁶⁰ △권혁중⁸⁸ △기영환⁶⁹
△김 진⁰⁸ △김계천⁵³ △김광일⁵⁶

△김남길⁶¹ △김대식⁷⁸ △김대환⁸⁶
△김범규⁰² △김병남⁷³ △김병진⁷⁷
△김상원⁹⁴ △김용백⁶¹ △김유간⁸⁶
△김유희⁵⁷ △김의석⁸⁴ △김재형⁵¹
△김제욱⁷³ △김종철⁷³ △김종호⁷²
△김준호⁷⁵ △김진욱⁹⁹ △김창언⁶⁷

△김철호⁷² △김현덕⁰¹ △김형민⁰⁴
△남광문⁶¹ △남궁석⁵² △노병덕⁸⁹
△노홍조⁴⁸ △류철호⁶⁷ △박경호⁶⁴
△박명규⁶³ △박상덕⁷¹ △박석현⁶⁷
△박이관⁵⁸ △박남식⁶⁸ △박덕현⁵³

△변정근⁵² △서정훈⁹⁷ △성영환⁵⁸
△성호용⁰³ △손무익⁶⁸ △손승래⁵⁴
△송상현⁶⁷ △신현국⁶⁸ △신효순⁵⁷
△안재목⁸⁷ △안정기⁰³ △안준규⁰¹
△안홍삼⁶³ △양만영⁶³ △오성목⁰⁴

△오열근⁵⁷ △오영환⁶⁸ △우종민⁹⁷
△유경진⁰⁷ △유상희⁵⁸ △유슬기¹¹

♠ 더원결혼정보
17년 名家 행복출발의 새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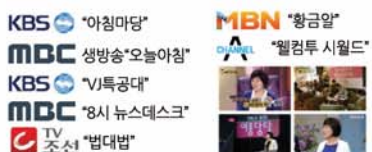
☎ 1588-3883

대한민국 1등 결혼 약속

결혼, 더~원 해요

• 서울대 동문 및 동문 자녀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V속 중매고수들



17년 노하우 大賞



와튼스쿨 MBA 동문
18만 대한민국 ROTC중앙회
KAIST 동문

홍유진 커플매니저 / 더원결혼정보
한국대표 커플매니저 19년 경력 중매고수
1만건 상담 1,000쌍이상 성혼
KBS 아침마당, MBN 황금알 등 중매고수 출연

결혼중개업 등록번호 : 서초 080013

△윤정목63 △이갑연83 △이강우61
△이동우85 △이명식49 △이병길59
△이병수77 △이성영63 △이세용82
△이소영06 △이승률55 △이원찬03
△이제근56 △이현웅01 △이현행70
△이희발72 △임용택55 △임종현04
△장재명00 △장현봉76 △전흥기69
△정상구73 △정상진68 △정연수05
△정용근85 △정인수73 △정지권60
△정대중48 △조동기93 △조문제73
△조승제56 △조영근67 △조영우03
△조정호65 △주석재75 △주용용72
△지덕선60 △최광선84 △최동일06
△최시정55 △최종민01 △한장원11
△한창석68 △허광엽05 △허병호03
△허준석99 △홍재훈81 △황인준95
△황해룡74

◆농대 △김갑근65 △김삼식53
△김석동72 △김시철83 △김용찬57
△김원문67 △김윤배61 △김이기80
△김인철01 △김재영94 △김재형88
△김종원57 △박기하49 △박동우70
△박상범02 △박윤근55 △박주원04
△박진화57 △박전서49 △백인빈58
△변영숙70 △손광훈62 △손병구63
△송종관52 △신경준76 △신재인56
△안승요51 △양석홍55 △양승엽52
△오정환60 △오충용60 △오흥석50
△유성구03 △윤오섭48 △이경용53
△이병전55 △이병현59 △이준녕36
△임용섭87 △임철홍11 △임철홍11
△장대석58 △장용인70 △정환근79
△조성환51 △조준기54 △천기길57
△최상근51 △최유지97 △최진협54
△하병중58 △한관석54 △한기학52
△한해룡55 △허문도57 △현재선44
△홍의표58 △황용진56 △황재순70

◆문리대 △강낙중56 △강명순59
△강세원56 △고석진57 △고인석56
△기우택57 △김신환52 △김영웅63
△김용웅64 △김정숙58 △김형련66
△김형효58 △김호정49 △남기진65
△도홍길61 △박영순68 △배인하59
△배태영67 △백영일67 △변중섭48
△서병현53 △성명제54 △소광희53
△송길상48 △신현식56 △오권태56
△오인환63 △온종렬72 △우창웅52

△유구영59 △유병길68 △윤영탁60
△윤하정47 △이병재60 △이성화58
△이영훈65 △이용길62 △이재현56
△이정숙57 △이종길62 △임채호58
△정기인60 △정봉택50 △정영채62
△정익성57 △조원홍71 △천병희56
△최건수66 △최규봉53 △최승일61
△한정인50

◆미대 △김충경54 △박민희85
△박소영97 △손복희67 △안종문60
△양혜진99 △윤영출82 △이동원90
△전지윤86 △정규현02 △정인경85
△조용숙61 △차정화05 △최경주04
△한연호77

◆법대 △강재섭67 △강정욱84
△곽규택90 △구은석98 △구중화48
△김각연84 △김경태84 △김기수58
△김선규55 △김영갑74 △김영규57
△김운용81 △김윤구51 △김재호81
△김정환57 △김주원82 △김진홍57
△김현영63 △박민96 △박찬63
△박주환63 △박창훈78 △박천서56
△박태호67 △백보은61 △변동걸66
△서주홍73 △석성환54 △손재식52
△손정윤87 △송남석55 △송재현60
△심훈중56 △인덕호87 △인창수52
△이광철65 △이대영58 △이병무57
△이원기81 △이용웅65 △이익동64
△이학성77 △임강배81 △임상현59
△장성웅05 △장준봉55 △전완수85
△전일호96 △정기돈78 △정병두80
△정우채08 △정지태58 △조영국86
△조해병61 △하성대49 △한광수65
△한원도55 △한후진57 △허주목54
△호영진56 △황운영55

◆사대 △강명득70 △고경순61
△고무송59 △고종익74 △구양인60
△구자혁57 △김경은00 △김다림95
△김병국56 △김상옥47 △김소연85
△김예기54 △김용선53 △김종우54
△김창성78 △김혜우64 △김혜정85
△김환수03 △문일성53 △민영엽55
△박영숙41 △성완용63 △성하경56
△심상팔50 △안정훈99 △양성봉79
△양홍룡71 △오경자52 △오유정08
△우인섭47 △유명선67 △윤상현56

△이규식58 △이기종56 △이기충55
△이길오73 △이길자63 △이범훈47
△이병무52 △이보식53 △이윤하63
△이재만52 △이정태70 △이종숙43
△임수진84 △장대운54 △장준호56
△전경옥58 △전홍렬67 △정광훈00
△정규범70 △정근훈49 △정부길59
△정은실74 △차도완55 △최낙준61
△최두영78 △최익규50 △최현하52
△최희주52 △한상윤88 △한창립59
△홍현선94

◆상대 △고을상51 △고학모56
△김경렬53 △김규석55 △김만우67
△김용은53 △김웅렬49 △김운재53
△김한오53 △김형영56 △김홍배63
△나웅배53 △민용식60 △변병주60
△변형윤45 △송정위60 △신동현56
△신동현56 △신용태59 △양해성68
△오명선53 △오우현55 △위병택62
△유재윤68 △이규찬55 △이기철55
△이기홍50 △이동원51 △이상호57
△이필원60 △장기남61 △장기선66
△전창기57 △정문화71 △정상용61
△정해운46 △조근목55 △채경석61
△최성현56 △허남린53 △허재원56

◆생활대 △박미연04 △백선자64
△심혜영07 △안영희57 △정경숙58
△정하윤86 △최규순61

◆수의대 △김용대63 △류기승60
△변광복63 △신문근56 △양진건85
△원문상60 △이상우65 △이생근78
△조광영54 △최귀철77

◆약대 △공현표67 △김수영98
△김원선54 △김종윤53 △김현욱57
△김홍대59 △류한호60 △변은자51
△서정훈06 △송희성60 △유용근54
△윤승모67 △이동악57 △이삼수80
△이상호66 △이애영56 △장봉수61
△정환수51 △최경희54 △최병근52
△최혜정86 △한은아91 △허진종61
△홍순태67

◆음대 △강미증69 △김경화73
△문영애65 △박정배53 △오진목68
△이운정04 △정혜연02 △최유리07
△함현혜62

◆의대 △강정후70 △고재균50
△공현식92 △김내준49 △김병엽50

△김종박59 △노준량60 △박남진71
△박수영05 △박은주03 △박주홍01
△박준남72 △변종훈69 △양두병69
△이은혜74 △이인영51 △이준걸88
△전동수44 △조관재08 △주원식76
△주정화52 △주진순43 △채희복85
△최현74 △최동호79 △한정규98

◆치대 △강규욱76 △강대준62
△강신구65 △강우근64 △김공배58
△김병준68 △김정태66 △김철위57
△김평일72 △김하늘05 △박경정69
△박시우54 △박용세60 △박용락58
△박이자60 △박태수64 △백승진75
△백정화86 △서기환74 △서상주56
△송재경96 △심정민87 △안성모68
△양병호01 △용호택67 △이경모76
△이규철58 △이세영96 △임광수60
△홍성룡64

◆대학원 △김우식66 △박명호89
△박미경93 △심재영78 △이수형78
△이정도67 △최홍규82

◆경대원 △고창석71 △김일란69
△박영희90 △유민철71

◆MBA △김형철11 △박철형10
△이희은06 △정희선11

◆교대원 △홍순강73

◆국대원 △신동연03

◆보대원 △김남주66 △서광석79
△이용성73

◆신대원 △변정민73

◆행대원 △고윤환84 △김명진67
△김주현92 △노선호68 △박성룡10
△박원신77 △유필우75 △임세환71
△정순영81 △정영섭66 △채양이86

◆한대원 △김경철83 △김민주08
△김인근84 △노재원85 △박종준03

◆AMP △강은채44 △고윤재20
△김성득34 △김영훈49 △김용범30
△남현일32 △류철조12 △민영복42
△박민우73 △박원식66 △성영창26
△오연수4 △유영결26 △유재열35
△이영주5 △이중삼40 △이진선36
△이현섭22 △장기호50 △장남진48
△조준행76 △진성섭10 △최병철65

◆AIP △구항욱37 △김정영21
△박경흠23 △양태준40 △우동석7
△이문기16 △이중기5 △이현영8

△임은재45 △장일재3 △장희천20
△조종제14 △차정웅18 △채대석15

◆ACAD △권기선77 △김동찬18
△김부근31 △문동명44 △박명서27
△배상태77 △서찬교40 △안승우38
△안희수11 △윤영수77 △이강연27
△이근일40 △이동성77 △이상규74
△임대환69 △전종식7 △정하철52
△전세욱9 △홍성철77

◆ABP △김영근15 △변정섭14
△유항기39 △이병운30 △이정익26

◆SGS △민상금1

◆APC △곽익연17 △안병철5
△이재욱11 △홍기만3

◆HPM △김철31 △박기봉31
△오한진31 △윤지영29 △이달희31
△정용기31 △최병현31 △하진원31
△홍남희31

◆AMPP △권택훈13 △김도섭13
△정성훈10 △한재순7

◆AFB △김장만13 △성진만10

◆AMPFRI △장선희23

◆ACPMP △우철식8

◆GLP △김광철23 △김재권25

◆ALP △고형봉10 △김영배2
△문훈숙12 △이정재8 △이학범14
△정영조8 △차원진3

◆SPARC △구재홍9

◆AFP △백승정13 △조운자13
△최용수13

◆ASP △김관영26 △김영학26
△박승구3 △오창환26

◆ABKI △김세제4 △이진근3

분담금

◆미주동창회 11,000달러
◆인도네시아지부 1백만원



이화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공구가 만들어가는 세상!

1975년 창립 이래 국내 1위,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공구 종합 제조기업으로서
전세계 90여개국의 수출시장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화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모든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다이아몬드공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LED · SOLAR
- 자동차 · 항공 · 기계 · 광학 · 중공업
- 건설 · 석재 · 마이닝

본사 및 국내공장



해외공장 / 해외법인



제1기 월드클래스 300 선정
(지식경제부)



www.ehwadia.co.kr



(주)VL&CO · (02) 548-6801,6835 www.louiscastel.com



LOUIS CASTEL
PARIS

사랑을
보여
주세요

아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아빠의 귀여운 친구요청!



한국쓰리엠주식회사

사무용품사업팀

고객상담실 080-033-4114

www.3m.co.kr

3M